

16일 Market Index			
코스피	2480.24	코스닥	816.75
	(+0.89)		(+2.22)
금리	3.242	환율	1338.60
	(-0.037)		(+1.60)

스마트폰 ‘脫중국’
삼성·애플
인도로 출격
02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세계 경제 시한폭탄 재각재각... ‘2011년 악몽’ 재연되나

〈美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던 전례〉

美 ‘디폴트’ 위기 고조

美 부채 한도 4경1510조원
연방정부 한도 상향 실패시
내달 1일 디폴트 발생 전망

2011년 ‘부채협상 파행’ 당시
코스피 17% 폭락 등 충격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정부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못하면 이르면 오는 6월1일 디폴트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디폴트가 세계 경제에 미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1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부채 한도는 2021년 12월 증액된 31조 3810억달러(약 4경1510조원)다. 이에 미 재무부는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연금 신규 납부를 유예하는 등 특별 조치를 통해 디폴트를 피했다. 그러나 이달 중 미 의회에서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법률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달 1일 미국 정부가 디폴트 사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미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전일 기준 72.59bp(bp=0.01%포인트)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채권 투자자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제3의 기관과 체결한 계약을 뜻한다. 즉, 미국의 CDS 프리미엄이 치솟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부도 가능성이 커져 원금을 보장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가 올랐다는 의미다.



4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韓日 경제인들

한일경제인회의가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를 주제로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 앞서 (앞줄 왼쪽부터)류진 풍산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등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일경제인회의가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를 주제로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 앞서 (앞줄 왼쪽부터)류진 풍산 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등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01%포인트)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채권 투자자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제3의 기관과 체결한 계약을 뜻한다. 즉, 미국의 CDS 프리미엄이 치솟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부도 가능성이 커져 원금을 보장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가 올랐다는 의미다.

뉴욕타임스(NYT)는 팩트셋 데이터

를 활용해 향후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CDS 프리미엄은 독일의 약 50배, 불가리아·크로아티아·그리스·멕시코·필리핀과 같은 국가의 약 3~8배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한국 등 주변국으로선 미국의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악재라는 것. 특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 한국 등 신흥국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이탈할 수도 있다.

현재 상황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2011년 위기다.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채 협상이 파행되면서 디폴트 위기가 커진 바 있다. 이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AAA 신용 등급을 가진 국가에 속했으나 2011년 부채한도 대립으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의해 신용등급이 AA+로 강등됐다.

〈8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사설

메트로경제와 함께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찾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동반자 메트로
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찾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함성과 함께 태어난 ‘메트로신문’은 지난 2015년 11월 ‘뉴메트로 선언’에 이어 2018년 3월 유료신문 ‘메트로경제’의 동시발행 등을 통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경제정보를 제공하면서 미디어 업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취재경위를 자율 공시하는 ‘기사이력 공시제도’를 국내 언론사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AI(인공지능)앵커를 활용한 동영상, yap TV와 제휴를 통한 서울 시내버스 내 뉴스 제공 등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과 융합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1년 역사의 메트로와 함께 언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2면에 계속〉

metro[®]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지역간 과도한 갈등·국민불안 초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후 오후 12시 15분에 재가했다. 〈관련기사 6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외교도, 경제·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지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지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 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

과 불안감이 지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이나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된 법안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고됐다.

또,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가 간호법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인 만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하면 간호법은 폐기된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LG화학, 전지소재 앞세워 매출 40조 키운다

글로벌 톱 종합전지소재회사 도약 혁신신약 등 3대 신성장동력 육성

LG화학이 ‘글로벌 톱 종합 전지 소재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전지 소재 매출을 2022년 4조7000억원에서 2030년 30조원 규모로 6배 성장시키겠다는 ‘3대 신성장동력’ 매출 목표를 제시했다. 전지 소재 매출 목표는 기존 목표 대비 9조원 상향 조정했다. 친환경 소재와 혁신 신약까지 매출 목표를 상향해 3대 신성장동력 매출의 총합은 40조원에 달한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16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해외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열린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코리아 & 글로벌 전기차·이차전지 컨퍼런스’ 기조 연설에서 새로운 매출 목표를 밝혔다.

LG화학은 전지 소재를 포함한 친환경 소재, 혁신 신약 3대 신성장동력의

매출 비중은 21%에서 57%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LG화학은 석유화학 중심의 비즈니스에서 ‘톱 글로벌 과학 기업’으로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신 부회장은 “LG화학은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지속가능 전략에 기반한 신성장동력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왔다”며 “LG화학의 중심축이 3대 신성장동력 비즈니스로 이동하는 근본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전지 소재 회사로 도약

LG화학은 2030년 매출 30조원 규모의 글로벌 톱 종합 전지 소재 회사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LG화학은 양극재 외에도 분리막, 탄소나노튜브(CNT) 등 부가소재 사업을 육성하고, 퓨어 실리콘 음극재,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등 신소재 R&D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이니켈 양극재는 시장·기술·메탈 소싱 3개 영역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

보하여 시장을 지속 선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시장 리더십 강화를 위해 한·중·미·유럽으로 이어지는 양극재 글로벌 4각 생산 체계를 갖추고, 2023년 12만톤의 규모의 생산 능력을 2028년 47만톤까지 확대키로 했다. 자회사 LG 에너지솔루션 등 신규 글로벌 고객사 비중도 확대해 40% 수준까지 끌어 올릴 예정이다.

기술 영역에서는 파우치, 원통형 배터리 중심 하이니켈양극재 제품군 확대, 니켈 비중 95% 수준의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 양산, 단입자 양극재 기술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업계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고객사 니즈와 성장하는 전기차 대중 소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고전압 미드니켈(Mid-Ni), 리튬인산철(LFP), 망간리치(Mn-Rich) 등 다양한 중저가 양극재 제품군으로 사업 확장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버스타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민주 “김남국에 자료 요청했지만 못 받아... 탈당 후 재차 요청”
▲박지원 “김남국 자진탈당, 스스로 단두대 올랐던 것”
/사진 뉴시스

▲野 김성주 “尹 대선공약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정치 코미디”
▲輿 김웅 “김남국 보다 더 수상한 것은 이재명... 코인공동체”



▲정의당, 권익위에 ‘코인 조사’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사진 뉴시스
▲野, 교육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처리... 輿 퇴장

스마트폰 ‘脫 중국’… 삼성도 애플도 인구대국 인도로 출격

인도인구 14억2577만명 中 추월 보급률 60% 못미쳐 잠재고객 많아

삼성전자, 인도시장 2분기째 1위 스마트폰 판매량 전년비 247% ↑

애플, 뭄바이·뉴델리에 매장 오픈 폭스콘 위탁 아이팟도 생산하기로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격전지가 ‘인도’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탈(脫) 중국 분위기 속에 인도 시장은 ‘인구 대국’의 면모도 보이며 스마트폰 판매지로서의 매력도 높아지는 중이다.

인도 시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인구’가 가지는 힘이 크기 때문이다. 유엔 경제사회처(DESА)는 지난달 24일 인도 인구가 4월 말 14억2577만5850명이 되면서 중국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이 ‘인구 1위’ 국가를 인도에 내줄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인도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60%에 미치지 못해 향후 스마트폰을 살 잠재 고객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에 방문한 고객들에게 매장 직원이 제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지난해 출하량 기준 1억5200만대로 중국의 2억8600만 대보다는 적지만 향후 늘어나리라 예측했다.

인도의 경제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의 인구 1%만 스마트폰을 산다고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인도 고객들도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하

려는 비중이 늘고 있어 제조사들의 격전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분기 인도 스마트폰 출하량을 짚어보면 600달러 이상 프리미엄 스마트폰 비중은 11%로 4%에 불과했던 작년보다 3배가량 높아졌다.

삼성전자는 현재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2분기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4분기는 점유율 23%를 기록한 샤오미가 1위를 점유했지만, 삼성전

자가 인도 시장 내 포트폴리오를 개선하며 중저가 시장과 플래그십 시장의 판매를 개선을 이끌며 인도 시장 내 판매율 1위 굳히기에 들어갔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인도 시장 내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량은 지난해 1분기보다 247% 급증했다.

중저가시장에서는 갤럭시A 5G 시리즈가 출하량의 50%를 차지하며 효과 노릇을 하고 있고, 갤럭시 S23 시리즈의 글로벌 성공은 인도 시장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됐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의 인도 공세는 최근 급격히 거세졌다. 지난달 인도 뭄바이와 수도 뉴델리에 애플스토어 1·2호점을 개장한 데 이어 아이팟도 인도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아이팟은 애플의 협력사 중 하나인 세계 최대 전자 기기 위탁생산 서비스 업체 ‘대만 훙하이 정밀 공업(폭스콘)’ 맡는다. 또한 폭스콘은 인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인도에 약 7억 달러를 들여 아이폰 부품 공장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이 같은 투자를 이어가는 이유는 인도가 ‘가능성’이 보이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애플의 지역별 매출만 봐도 ‘애플 텃밭’으로 불리는 중국, 일본, 북미, 남미, 유럽 등에서 부분의 지역에서 매출이 하락한 반면, 인도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매출 상승세를 보이며 ‘대국’의 잠재력을 보여줬다.

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이 21%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애플 아이폰의 점유율은 약 6%로 추정돼 인도 고객들에게 애플 브랜드의 선호도가 높지는 않은 상태다.

한편, 삼성전자도 인도에서 투자를 이어가고 마케팅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인도 노이다 지역에 약 8000억원을 들여 2018년 7월 스마트폰 신공장을 완공했으며, 갤럭시 S23 시리즈부터는 인도 공급 물량을 해당 공장서 생산하기 시작했다. 향후 나올 신제품인 갤럭시Z(폴드5·플립5) 시리즈도 인도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소비 살아났지만 기저효과 탓… 기대 못미쳐

● 차이나 뉴스&리포트

소매판매 18% 증가 2년여 만에 최대 16세~24세 실업률 20% ‘사상최대’

중국의 소비가 살아났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이 본격화되면서 소매판매가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다만 경기 회복을 자신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작년 주요 도시 봉쇄에 따른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고,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8.4% 증가했다. 증가폭으로 보면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두자릿수를 이어갔고, 지난 2021년 3월(34.2%) 이후 가장 크다.

외식 등 식당 소비가 43.8%나 급증

했고, 상품 소매도 15.9% 늘었다. 자동차 판매는 16.5% 증가했다.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작년 4월 상하이 등 주요 도시가 봉쇄되면서 소비가 얼어붙었던 만큼 시장에선 소매판매 증가율이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핀포인트자산운용 장즈웨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기저효과 때문에 보이는 성장률은 높지만 전체적으로 지난달 경제 활동이 예상보다 약하다”며 “향후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생산과 고정자산 투자도 개선세가 다소 미진했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5.6%로 집계됐다. 전달(3.9%)에 이어

개선세가 이어졌지만 시장 예상치(9.8%)는 크게 밑돌았다. 자동차 제조업의 증가율이 44.6%로 전체 지수를 끌어 올렸고, 장비제조업과 화학업종이 각각 13.5%, 7.5%로 호조를 보였다.

국가통계국 관계자는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긍정적 요인이 누적됐다”면서도 “국제 환경이 여전히 복잡하고 가혹하며, 국내 수요는 부족해 경제 회복을 위한 내생적 동력이 아직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더 높아졌다. 도시 실업률은 5.2%로 전달보다 0.1%포인트(p) 하락했지만 16~24세 청년실업률은 20.4%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오는 7~8월에는 대졸자 1158명도 취업 시장에 뛰어들다.

/안상미 기자 smahn1@



尹, 우크라이나 영부인 젤렌스카 여사 접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하고 있다.

/대통령실

항암·대사질환 후속신약 상용화 계획

>> 1면 ‘LG화학, 전지소재’서 계속

중국, 북미, 호주, 한국에서 화유코발트, 피드몬트 리튬, 캄코 등 주요 기업들과 전구체 JV 공장 설립, 리튬 구매계약, 지분 투자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분리막 등 부가 전지 소재 사업 확대로 성장 지속을 꾀한다. 미국 IRA 법안에서 분리막이 ‘배터리 부품’으로 포함되어 사업 기회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혁신’ 신약 개발 공들여

LG화학은 재활용(Recycle), 생분해·바이오(Bio), 재생에너지 소재 중심으로 사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해 업계 저탄소 비즈니스 리더십을 강화하고 관련 매출도 2022년 1.9조에서 2030년 8조원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G화학은 2028년 10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 공략을 위해 기계적·화학적 재활용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LG화학은 화학적 재활용 기술 확보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화학적 재활용은 물질 변화와 재활용 횟수에 제한이 없어 시장성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LG화학은 FDA 승인 신약 5개를 보유한 매출 2조 규모의 글로벌 혁신 제약사로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항암·대사질환 영역에 자원을 집중하여 후속 신약을 지속 상용화할 계획이다.

신 부회장은 “LG화학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완성하고, 전지 소재·친환경 소재·혁신 신약이라는 3대 핵심사업을 보유한 글로벌 과학기업으로 대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1면 ‘메트로경제 사회’서 계속

■ 모집부문

- ① 신입 취재기자(정규직)
- ② 경력 취재기자(정규직)

■ 모집내용

1. 신입 취재기자

- ① 전형방법
 - ▲ 1차 : 서류전형
 - ▲ 2차 : 취재역량평가
 - ▲ 3차 : 면접(1차 실무 면접 → 2차 최종 면접)
- ② 모집인원 : 00명
- ③ 응시자격
- ④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2023년 8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 ⑤ 경력, 성별 및 나이 무관

2. 경력기자

- ① 전형방법
 - ▲ 1차 : 서류전형
 - ▲ 2차 : 면접(1차 실무 면접 → 2차 최

종 면접)

- ② 모집인원 : 00명
- ③ 주요 모집부문: 산업, 금융, 증권, 정책
(상기 모집 부문이외에도 메트로와 함께 미래를 개척할 진취적인 분은 지원가능)
- ④ 응시자격
 - ①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
 - ② 동종업계 기자경력 2년 ~ 7년
 - ③ 성별 및 나이 무관
- ⑤ (공통사항)
 - ①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②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③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 우대(신입기자만 적용)
- 제출서류
 - ① 회사 입사지원서 1부(☞ 본지 홈페이지, 구인 사이트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 ② 경력기자 지원자는 기명 기사를 첨부

(1개~2개)

- ③ 졸업(예정)증명서 등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원서접수
 - ① 기 간 : 2023년 4월 26일(수) ~ 2023년 5월 21일(일)
 - ② 접수방법 :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5월 21일 도착분)
 - ③ 접수장소 :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옥인동)
 -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① 신입기자 : 5월 25일(목) 본지 웹 사이트 공고 및 개별 통보
 - ② 경력기자 : 개별 통보
- 기타
 -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로 문의(전화 02-721-9851)

부채상환 vs 마이너스통장... 소득 따라 금리 활용법 천지차

금리인상 세대별 후폭풍

〈중〉 4050 세대

전 연령 중 월평균 소득 가장 많아
지출 규모도 커지며 상하위 격차 ↑
“교육비 등 부담완화 방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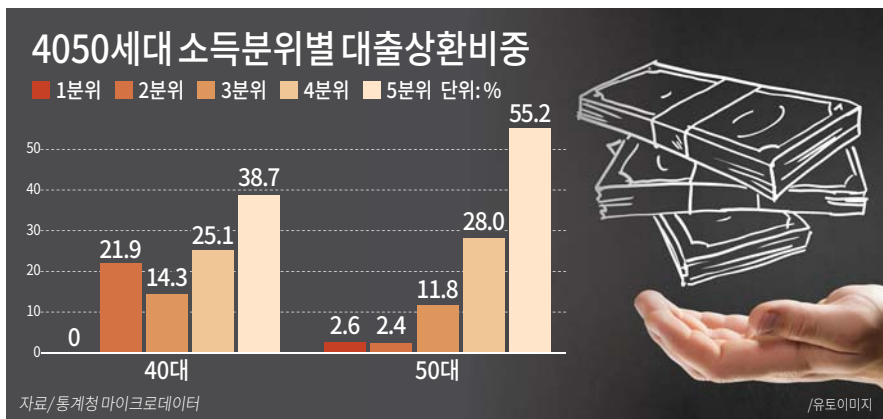
#. 외벌이 직장인 김모씨는 3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쓰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서 생활비 지출은 늘어나고, 두자녀의 교육비 등이 월급만으로는 감당이 안됐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대출금리를 볼때마다 마이너스통장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현실적으로 생활비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며 “나라에선 청년과 노인이 힘들다고 지원 대책을 내놓지만, 중년들도 살기가 정말 팍팍한 상황”이라고 했다.

399만7500원. 4050세대의 월평균 소득이다. 전 연령 중 가장 소득이 많지만 그 만큼 나갈 곳도 많다. 일반적으로 4050세대는 생활비 외에도 자녀교육비와 주택구입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나아가 노후준비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팬데믹 이후 4050세대의 빈부격차는 소득이 유지여부와 부채상환, 소득에 더해 자산을 얼마나 증식시켰는지에 따라 갈렸다.

◆ 4050세대 비자발적 퇴직자수 ↑

지난해 40대 비자발적 퇴직자수는 17만7000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45.6%에 달했다. 비자발적 퇴직이란 직장의 휴·폐업,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실직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 50대가



지 합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원치 않게 퇴직한 사람이 절반이상 된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4050세대는 소득은 많았지만, 소득의 분포는 극명하게 갈렸다. 메트로신문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로 연령별 소득분위를 분석한 결과 50대의 경우 소득 하위 20% (1000만~3000만원 미만)의 비중은 11.34%, 소득 상위 20% (7000만~1억원 이상)의 비중은 30.73%였다. 20대와 60대의 경우 소득 하위에 대부분 몰려 있어 소득 상위 20%의 비중이 적었다면, 4050세대의 경우 소득 상·하위 20%에 몰려 있다는 설명이다.

◆ 상위 20% 대출상환하고, 하위 20% 마통 사용

문제는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 하위 층을 중심으로 마이너스대출 등이 증가하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한 번에 목돈을 받는 다른 신용대출과 달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생활비나 긴급 자금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4050세대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해 8월기준 28조6720억원으

로, 전체 사용금액의 64%를 차지했다. 2030세대가 13조997억원을 사용해 전년 말 대비 3%감소한 것과 달리 3% 증가했다. 금리인상 상황에 맞춰 마이너스통장을 줄이고 있지만, 소득보다 지출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마이너스통장 사용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소득 상위 20%는 금리인상시기 부채를 상환해 나갔다. 40대 소득 상위 20%는 전체 부채 가운데 38.71%를 상

환한 반면 소득 하위 20%는 한 톨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소득 상위 20%는 전체부채 중 55.18%를 상환했지만, 소득 하위 20%는 2.64%에 그쳤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득 상위 20%의 경우 부동산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대출을 활용하지만 금리가 인상되고부터는 대출을 먼저 해소하려는 경향이 컸다”며 “불필요한 지출(이자상환)을 줄이고, 현금비율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 하위 20% 노후준비 “전혀 되어있지 않아”

이 밖에도 4050세대는 노후준비에서도 자산 상위 20%와 하위 20%가 극명하게 갈렸다. 2030세대들의 대부분이 노후준비상황과 관련해 ‘잘되어 있지 않다’ 이하에 몰려 있는 것과 달리, 4050대는 자산상위 20%는 ‘보통이다’에, 자산하위 20%는 ‘전혀 되어 있지

다’에 분포했다. 자산상위 20%도 ‘잘되어 있다’는 비중이 15%내외로 낮았지만, 하위 20%에 비해선 은퇴이후의 생활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후준비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은 부채상환 부담과 자녀교육비 등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노후준비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은 부채상환 부담과 자녀교육비 등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일정 연령층이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사적연금 가입시 소득공제를 확대하거나, 퇴직연금과 관련해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대해 기업의 기여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1년생 서울소비경기지수 6.7% ↑

서울 3월 서울소비경기지수 122.4
전 권역 상승... 서북권 으뜸폭 가장 높아

올해 3월 서울소비경기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소비경기지수는 122.4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6.7% 올랐다.

올 3월 서울소비경기지수 상승은 숙박·음식점업(22.7%)의 소비 증가에 따른 것이다. 숙박·음식점업의 하위업종 중 주점·커피전문점(37%)과 음식점(26.2%)의 소비 호조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와 반대로 소매업(-0.9%)은 약세였다. 구체적으로 기타가정용품(-15.7%), 가전제품·정보통신(-12.4%), 음식료품·담배(-4.2%), 종합소매(-3.8%), 기타상품(-2.8%), 문화·오락·여가(-2.5%) 순으로 소비가 줄었다.

권역별 소비경기지수는 서울 전역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서북권(11.9%)의 소비경기지수 으뜸폭이 가장 컸고, 도심권(7.7%), 동남권(7.2%), 서남권(6.7%), 동북권(5.8%)이 뒤를 이었다.

서북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9% 상승해 가장 큰 으뜸폭을 기록

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30.5%)의 소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주점·커피전문점(48.5%), 음식점(27%), 숙박(0.6%) 등 모든 하위업종의 소비가 늘었다.

서북권의 소매업 소비경기지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 짝퉁 올랐다. 의복·섬유·신발(21.3%), 연료(8.2%), 무점포소매(4.6%), 가전제품·정보통신(1.4%)을 제외한 5개 하위업종의 소비가 쏠그라들었다. 특히 문화·오락·여가가 10.4% 감소하며 상승 폭을 확 꺾었다.

동북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8% 상승하는 데 그쳐 5개 권역 가운데 증가세가 가장 부진했다. 숙박·음식점업은 25.4% 증가한 반면, 소매업은 3.6% 감소했다.

동북권 숙박·음식점업은 주점·커피전문점(47.3%), 음식점(22.7%)이 선전했으나, 숙박이 10.1% 줄면서 증가 폭을 둔화시켰다.

소매업은 의복·섬유·신발(25.3%), 문화·오락·여가(5.1%), 무점포소매(0.7%)를 제외한 모든 하위업종의 소비가 축소됐다. 세부적으로 가전제품·정보통신(-12.0%), 기타가정용품(-9.3%), 종합소매(-7.9%), 음식료품·담배와 연료(-6.9%), 기타상품(-5.3%) 순으로 소비가 감소했다. /김현정 기자 hjk10@

서울특별시교육청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꿈

“친구 마음 알아주고, 내 바람 전해요.”

알아주기
먼저, 친구 마음 알아주기

이해받기
내 마음 말하기

바람 묻기
친구 바람 묻고 답하기

바람 말하기
내 바람 말하고 묻기

車업계 호실적에 목소리 커진 노조... 임단협 진통 예상

현대차·기아, 1분기 역대급 실적
정년연장·상여금 요구 거세
‘실적 회복’ 한국지엠·르노
임금인상 팽팽한 기싸움 전망

국내 완성차 업계가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과 임협(임금협상)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완성차 5개사가 12년 만에 일제히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무리했지만 올해는 1분기부터 호실적이 이어지면서 임단협을 앞둔 노조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한 현대차는 올해 1분기에도 전년대비 86.3% 증가한 3조5927억원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시작될 임단협을 앞두고 벌써부터 노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조립공장.

현대차 노조 소식지인 ‘현자지부신문’에 따르면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앞두고 최근 확대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1만원 이상 임금 인상과 2500만원 이상 성과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가장 중요한 의제로는 정년 연장을 꼽았다.

올해 적절한 임금인상 규모는 ‘11만

원 이상 13만원 미만’이 46.3%로 가장 많았다. ‘5만원 미만’은 응답자가 한 명도 없었다. 원하는 성과금 규모는 ‘2500만원 이상’이 49.2%를 차지해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또 올해 별도 요구안에 답아야 할 안건으로 ‘정년 연장’ (59.9%)이 가장 많았고, 상여금 800% 요구(39.6%)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 단체협상

에서 파업해서라도 노동 요구안을 쟁취해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51%)을 넘었다.

임단협을 앞두고 이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노조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측과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기아도 노사간 갈등이 예상된다. 기아도 높은 실적을 기록한 만큼 최대임금과 최대 성과금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아 노조도 정년연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매년 정년 연장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만큼 이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기아 노조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최대 실적에 걸맞은 최대 임금과 최대 성과금 쟁취를 최우선으로 하고 올해 임금 및 별도 요구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노조답게 승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달 노조 대의원회를 거쳐 이달 말 상견례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한국지엠도 올해 임협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임협을 앞두고 임금 인상과 함께 성과금에 대해 조율 중이다. 그동안 한국지엠 노조는 오랜기간 이어진 적자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임금 인상과 성과금 지급 논의 과정에서 회사의 요구를 수용해 왔기 때문이다. 올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만

큼 노조원들이 임협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이다.

또 비정규직 지회의 복직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지엠은 지난 2020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2019년 한국지엠 창원 공장 사내하청업체 일부가 폐업하면서 해고된 비정규직 568명을 트랙스로 스오버 신차 생산 설비 도입 이후 복직시키겠다고 구두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해 기업회생을 끝낸 KG 모빌리티는 올해 첫 임단협을 진행하는 만큼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지난 2021년 자구안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리 후생 중단과 직원 임금 20% 삭감을 진행한 만큼 올해는 임금과 복지 정상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KG모빌리티는 중형 SUV 토레스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41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흑자전환했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임단협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르노코리아는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국내 라인업 부족 등 경쟁력 약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체질개선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소비자 구매 여력 약화로 업체들마다 수익성 증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 자동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에 따른 생산 차질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와 사업 전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X하우시스

www.lxhausys.co.kr

결국 LX Z:In이거나, 아니거나

편의성에 품격을 더한 프리미엄 창호, 수퍼세이프

LX Z:In

車 수출 232억달러 ‘사상최대’ 친환경차 전년比 30%↑ 선전

흑자 규모 177억달러 수출품 중 1위
미국·유럽 중심 수출 호조세 지속
친환경차 1년 전보다 수출량 33.7%↑

올해 들어 4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가의 친환경차 수출이 1년 전보다 30% 이상 증가하며 전체 수출액 증가를 견인했다.

미국으로의 친환경차 수출은 상업용 차량 판매 비중이 늘면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4월 자동차 수출은 24만7000대, 수출액은 62억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25.3%, 40.3% 증가했다. 1~4월 누적 수출액은 232억달러로 사상 최고치, 흑자 규모도 177억달러로 수출 품목 중 1위를 기록했다.

자동차수출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며 증가했다. 특히,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수출은 6만4000대(20억5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수출량 기준 33.7%, 수출액으로는 55.8% 상승했다.

4월 친환경차 수출액은 역대 최고를 찍은 작년 3월에 이어 역대 2번째 높고, 3개월 연속 2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자

동차 수출 호조를 이끌고 있다.

친환경차 4월 내수 판매는 4만5000대로 전체 내수의 30.1%를 차지한다. 차종별로는 하이브리드(2만9306대), 전기차(1만4339대) 내수 판매가 각각 두 자릿수 증가했다.

자동차 생산은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공급 정상화 등에 따라 전년 동월대비 24.7% 증가한 38만2000대를 기록했다.

그랜저와 아이오닉 등 신차 효과 등에 힘입어 현대차·기아·한국지엠 생산이 늘었고, 작년 7월 출시된 토레스 영향으로 KG모빌리티 생산도 증가한 반면, XM3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르노코리아 차 생산은 소폭 줄었다.

자동차내수판매는 대기수요를 바탕으로 한 생산량 증가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4.3% 증가한 14만9000대를 기록했다. 내수는 신차 효과가 희미를 갈랐다. 현대차와 한국지엠, KG모빌리티는 신형 그랜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 토레스(2022년 7월 출시) 국내 출시 등으로 증가했다. 반면, 기아는 스팅어 등 구형 모델 판매량이 줄면서, 르노코리아는 XM3 판매량 감소 영향으로 내수 판매가 감소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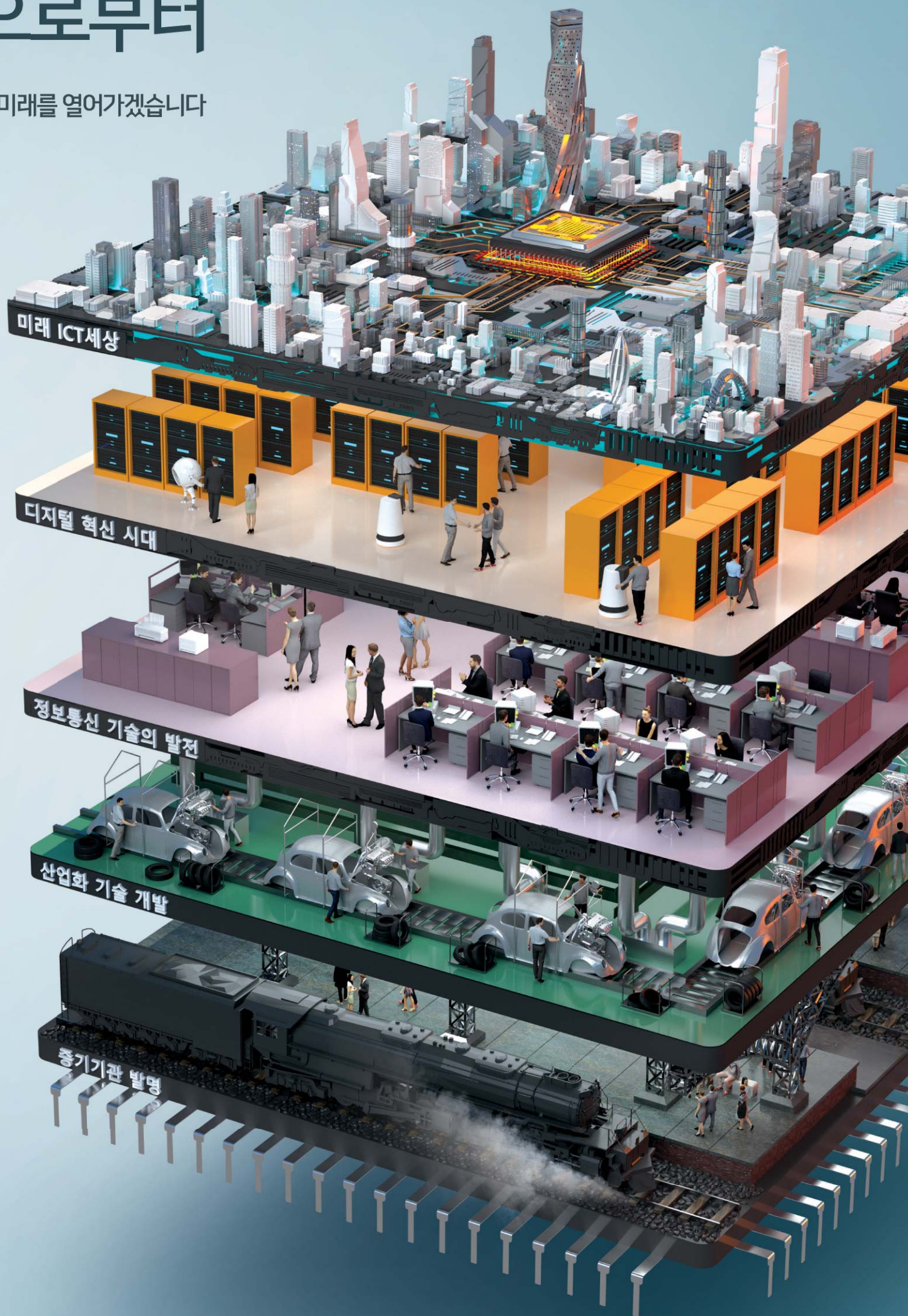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문명의 진보는 기술의 혁신으로부터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기술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與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 vs 野 “재투표 통해 법안 관철”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후폭풍

양곡법 이어 연속 거부권 행사
국민의힘 “국민 건강에 악영향”
민주당 “국민과 맞서는 길 택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하면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간호사의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고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내용 및 간호사뿐 아니라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및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담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야당과 간호사 단체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안 공포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반면, 여당과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에서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등을 들며 강력 반대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가중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이 간호법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입장문을 내고 “기어 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국회에서 재투표를 통해 법안 통과를 반드시 시키겠다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더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국민 통합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게 국민통합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

다”고 지적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며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의료 협업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말로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처우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껌데기 법안”이라며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떠넘기겠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만을 위한 입법권의 남용은 어떤 경우에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초래된 국민적 갈등에 대한 책임을 두고두고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간호사 처우법’ 제정이란 대안을 바탕으로 끝까지 협의에 나서겠다”며 “간호사 단체와 의료계도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단체행동을 중단

하고, 협의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도 거부권을 행사하며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에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갈등 양상이 반복돼 야당과의 협치 등 정치적 부담도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앞세워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으로 정부 기조와 맞지 않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어 대통령실과 야당과의 대립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김남국 진상조사 난항… 국회 윤리위 징계 거론

여야, 김 의원 향한 공세 고삐
국회 윤리특위 구성 마무리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60억원 가상화폐 보유 논란’ 관련 여야 정치권의 자체 진상조사가 난항을 겪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가 거론된다. 김 의원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예고한 자체 진상조사가 검찰 수사로 어려워지자, 윤리특위에서 징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이후 당 차원에서 공세도 이어가고 있다.

16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단은 최근 김 의원에게 이른바 ‘코인 논란’ 추가 자료 요청 후 답을 기다리는 중이다.

자체 진상조사단 소속인 김한규민주

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료 수집 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탈당 전 상세한 자료 요청을 한 상태였고,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의원 코인 논란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한 제2의 바다 이야기’로 규정한 뒤 자금 출처와 이해충돌 논란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예고했다.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송곳 검증’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료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 법적으로 있기에 전체

적인 대응 방향, 이상 거래 시 프로세스에 대한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자체 조사가 아닌 국회 윤리특위 징계 수순을 밟는 방식이 거론된다. 여야가 17일 국회 윤리특위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김남국의 원에 대한 징계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은 변재일 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로 내정된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현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1소위는 국민의힘, 2소위는 민주당 구성안’에 대해 논의한 뒤 잠정 합의했다.

변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내일(17일) 캐나다 총리 연설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와 소위원장 선임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1년간 이념적·반시장적 정책 정상화 재정 기조, 부동산 등 국가안정 성과”

尹 대통령 2년 차 첫 국무회의 주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간 이전 정부의 이념적·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했다며 재정 기조와 부동산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대선 당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워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드렸다”며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국민들께서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다”며 “우리 경제는 세계 시장 속으로 과감하게 파고 들어가 수출과 투자 유치를 함으로써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따라서 우리 경제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자유시장 원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이를 무시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첫 예산부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 조정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공시가 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제도 역시 유예 조치했다”며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언급하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조9000억원의 주기기 공급계약과 2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으로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찾고 있다”며 “13년 만에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로 끊어진 원전 수출을 재개했고, 차세대 원전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4000억원 규모의 SMR 개발사업에도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15일) 발표된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익 기자

‘마약청’ 신설 되나… 與, 처벌·재활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시사

국민의힘 마약중독 대책 간담회

국민의힘이 청소년 마약중독 문제와 관련, 사전 예방과 처벌·단속, 치유·재활, 복귀 등 절차가 통합된 시스템 구축을 시사했다. 장기적으로는 마약청 신설 가능성도 나왔다.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당내 특별위원회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 위원인 정희용 의원 등은 16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 청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취 후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현장의견을 청취한 뒤 “식

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 중독 재활, 단속은 법무부, 학생 교육은 교육부에서 따로 하고 있어서 이를 통할할 수 있는 마약청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마약청을 만들게 되면 전체를 통할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문제”라며 “범정부적으로 사전 예방에서부터 체포, 단속, 치유, 재활, 복귀까지 이뤄지도록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영훈 기자



원지 | 빠니보틀 | 각류브

진정한 마라맛을 찾아서

마라로드



채권시장 ‘단비’ 전기세 인상… 한 숨 돌린 카드론 금리

금융업계, 전기료 인상 환영
회사채 등 조달부담 완화 기대
대출 금리 인하 여력도 생겨
“시장 안정화 위해선 더 올려야”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카드론 금리 인하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그간 적자를 지속한 한국전력의 환급 능력이 커짐에 따라 채권 시장에 훈풍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확정됐다. kWh(킬로와트시)당 8원이 오른다. 지난 1분기(13.1원) 인상분을 고려하면 올해 kWh당 총 21.1원 상승했다.

정부는 그간 서민경제 부담을 우려해 인상을 미뤄왔지만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 감당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전기료 인상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채권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전력의 발행 채권(한전채)은 70조원 규모다. 한전채는 한국전력이 8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만



전기 요금 인상에 따라 카드론 금리 인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큼 초우량 등급인 ‘AAA’를 나타내고 있다. 이어 수익률은 연 3%대로 ‘뽄뽄한 채권’으로 불리며 채권 시장 내 ‘골칫덩이’였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회사채, 여전채 등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한국전력은 지난 4월 기준 올해만 7조3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여신전문금융업계에서는 조달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에 따라 채권 투자심리가 확대되면 여전채(AA+, 3년물) 가중금리(스프레드) 축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 서비스 금리를 낮출 여력이 생긴다. 아울러 1분기 카드업계는 조달비용 상승에 따라 순수익 감소가 이어졌다. 조달부담 완화 여부는 ‘단비’ 역할을 하는 셈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조달 비용 증가는 카드사뿐 아니라 여전업계 전반에 고충으로 다가왔다”며

“채권시장이 안정화되면 문을 닫은 중소기업도 캐피탈사 등의 영업재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단기간 내 여전사의 조달 비용이 축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금융권에서 기대한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올해 kWh당 51.6원이 상승해야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올해 kWh당 30원 넘는 수준의 전기요금에 올라야 한다는 것.

시민들의 반대 여론 또한 걸림돌로 작용한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책 마련은 물론 반대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남은 2분기 동안 kWh당 30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올해 전기료가 총 21.1원 올랐다. 이번 인상안은 시장 컨센선스(Consensus)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고채 대비 스프레드가 유의미하게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인카금융서비스

매출 전년비 30% ↑
1분기 역대최고 실적

인카금융서비스의 1분기 실적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지난 15일 공시를 통해 2023년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16일 밝혔다.

1분기 매출액은 116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83%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112억원으로 같은 기간 147.36% 급증했다.

당기순이익은 8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5.70%나 늘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분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인카금융은 호실적의 배경으로 우수설계사 유입 및 지난 3월 600억원 규모의 자금 마련으로 영업력이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1면 ‘세계경제 시한폭탄…’서 계속

주변국 주가 급락 등
세계경제 혼란 불가피

결국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주변국의 주가가 급락하고 채무위기 사태를 초래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국내 증시는 폭락을 피하지 못했다.

당시 국내 코스피(KOSPI)는 8월 초부터 일주일간 17% 가량 폭락했으며 1801.35포인트(p)까지 급락했다. 이는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두 번째로 큰 낙폭이었다.

특히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를 사들여 재정을 보호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디폴트가 현실화되고 국채 가치가 하락(국채금리 상승)하면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한국 또한 이 과정을 피할 수 없다.

국제통화기금(IMF)과 JP모건체이스 은행도 디폴트가 미국과 세계경제에 미칠 위험성을 경고했다.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만약 미국이 디폴트에 빠진다면 차입비용 증가 가능성을 포함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모든 당사자가 시급히 이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금융센터도 보고서를 통해 “미국 부채한도의 협상 타결 전에 디폴트 우려가 반영되거나 신용평가사들의 등급 강등이 있을 경우 2011년과 같이 금융시장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부채상향 관련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만난다. 여야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고 있어 협상 타결이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조건없는 부채 한도상향을, 공화당은 재정 지출 삭감을 연계한 협상을 요구 중이다. /구남영 기자

“해외여행시 카드 분실·복제 피해 주의”

신용카드 부정거래 사기 고도화
서명 필수, 분실시 즉시 신고를

#. A씨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직원으로부터 카드 단말기가 멀리 있다며 카드를 건네줄 것을 요청받았다. 의심 없이 카드를 건넸던 A씨. 현지직원들은 카드 결제 전 고객의 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를 유출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결제가 용이한 점을 노린 범죄다.

금융감독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와 관련한 부정거래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

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최근 국내외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카드 도난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건수 및 금액은 각각 2만 1522건, 64억2000만원으로 전년(1만 7969건, 49억1000만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국내외 여행수요 확대에 따른 도난분실에 의한 부정사용 증가 때문이다.

신용카드 부정거래 건수·금액은 ▲2019년 2만4866건 85억원 ▲2020

년 2만217건 62억5000만원 ▲2021년 1만7969건 49억1000만원 등 매년 증가세다.

특히, 해외의 경우 사고발생시 대처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 갈수록 사고액이 커지고 있으며, 사기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출국 전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 신청을 통해 카드 사용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해 해외 부정거래를 차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해외여행 출국전에는 카드사에 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카드분실신고 전화번호를 메모해둬 카드 분

실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카드 뒷면 서명은 필수로 해놓고, 타인에게 카드 양도 및 비밀번호 노출을 금지하라고 강조했다.

카드 뒷면 서명 누락 또는 본인인 카드를 양도하거나 비밀번호를 노출해 일어난 부정사용 사고는 보상률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카드 결제시 카드를 타인에게 맡기게 되면 카드정보 유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결제과정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대체공휴일·여름 휴가철 등을 이용해 해외 여행자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부정사용 피해도 증가할 것”이라며 “소비자 행동요령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삼성화재, 펫 커뮤니티 ‘O모O모’ 가입자 10만명 돌파

보험 브리핑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활용 소통
대학생 에세이 공모 시상식 개최

삼성화재가 펫보험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 다양한 연령층 고루 가입

삼성화재는 고객 호평에 힘입어 펫 커뮤니티 서비스 ‘O모O모(오모오모)’의 가입자 수가 출시 6개월 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모오모’는 반려동물 정보 공유 커뮤니티 서비스다. 나만의 반려동물 캐릭터를 만들어 앱 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특정 나이대가 선호하는 앱이 아닌 반려동물에 관심 있는 다양한 연령층이 고루 가입했다. ▲10대(15.6%) ▲20대(26.1%) ▲30대(23.9%) ▲40대(20.5%) ▲50대(11.4%)로 순이다.

지난달에는 리뉴얼을 통해 편의성을 높였다. 3D기반의 캐릭터 활동공간에서 커뮤니티는 웹(2D)으로 전환하여 접

근성을 높였다. 게시판은 카테고리를 분류해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신규 기능인 아이템캐릭터 꾸미기를 행사를 31일까지 진행한다.

교보생명이 광화문글판을 활용한 소통에 나섰다.

◆ ‘광화문글판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
교보생명은 광화문 본사 도전실에서 ‘2023 광화문글판 대학생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상식에는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광화문글판 문안선정위원회 관계자, 이정화 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수상자 및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편 사장은 “여러분의 재능, 노력, 진심이 담긴 글이 인정받은 것으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훌륭한 성과”라고 축하 인사를 전하며 “언젠가 교보문고에서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로 만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1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단짠’, ‘동행’을 주제로 한 작품을 출품했다. 교보생명은 수필가 이슬아부터 시인, 소설가, 동화작가, 광화문글판 문안선정위원회와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을 선정했다.

교보생명은 대상을 받은 학생에게 장학금 300만 원과 명예 광화문글판 문안선정위원으로 문안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김정산 기자

안정적인 무게감·부드러운 주행감··· 가파른 산길도 ‘거뜰’



렉스턴 뉴 아레나·스포츠 칸 쿨멘

대형 SUV지만 넓은 시야각 제공
와인딩 구간서도 롤링 현상 적어
부드러운 변속·언덕길 RPM 유지
거친 노면·나무 등 장애물도 안정적
핸들 무겁고 서스펜션 단단하게 세팅
오프로드 구간서 물 흐르듯 주행



KGMobility 렉스턴 스포츠 칸 쿨멘(왼쪽) 렉스턴 뉴 아레나.

KGMobility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올 뉴 렉스턴 상품성 개선 모델은 ‘SUV 명가’ 명맥을 잇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KGMobility의 전신인 쌍용자동차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픽업트럭을 생산하며 한국의 자존심을 이어왔다. 이번에 KGMobility가 처음으로 선보인 SUV 모델인 렉스턴 뉴 아레나와 픽업트럭 모델인 렉스턴 스포츠 칸 쿨멘은 온로드에서의 안정감은 높이고 오프로드에서 터프함은 극대화했다.

지난 9일에서 10일 강원도 춘천과 고성 일대 약 200km 구간에서 렉스턴 뉴 아레나와 스포츠 칸 쿨멘을 번갈아 시승했다. 시승은 강원도 춘천에서 평화의 댐, 고성 통일전망대 등 온로드와 화천 평화의 댐에서 옛 전두환 전망대까지 오르는 오프로드 구간으로 나뉘 진행했다.

뉴 아레나와 쿨멘은 SUV와 픽업트럭이라는 점에서 두 차량의 차이점은 뚜렷했다. 일반도로 주행시 뉴 아레나

의 안정감은 우수했다. 뉴 아레나는 대형 SUV이지만 부드러운 주행감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해 운전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고속구간에서의 가속력도 부족함이 없었다. 특히 차체가 높지만 고속주행이나 와인딩 구간에서 발생하는 롤링 현상은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운전대(스티어링휠)는 차량의 크기와 무게에 비해 가볍다는 부분은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와인딩 구간 등에서 조향하는 데 필요한 힘이 적게 들지

만 고속주행에서는 운전자가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파워트레인인 2톤에 가까운 차체를 가볍게 이끌었다. 디젤 엔진답게 저회전(1600~2600RPM)에서 발휘되는 토크는 인상적이다. 8단 오토미션은 연비 위주로 세팅돼 부드러운 변속 느낌을 주면서도, 언덕길에서 RPM을 유지하며 주행을 이어가는 느낌이 인상적이다. 일상에서는 2륜 구동 상태로 주행하다가 오프로드 구간에서는 고속 4륜구동(4H), 저속 4륜구동(4L)을 이용했다. 옛 전두환 전망대를 오르는 오프로드 구간에서 4H로 전환해 주행을 이어갔다. SUV 모델이지만 비탈진 산길과 내리막길을 부드럽게 빠져나갔다.

반면 픽업 모델인 쿨멘은 터프하다는 느낌이 강했다. 특히 오프로드 구간에서는 물 흐르듯 주행을 이어갔다. 아레나보다 하체가 단단하게 자리 잡혀 전체적으로 중심이 잘 잡혔다는 인상을 줬다. 실제 주행을 하면서 거친 노면과 나무, 돌 등 각종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서도 차체가 충격을 안정적으로 흡수했다. 또 움푹 패인 험로에서 한쪽 바퀴만 빠졌을

때도 안정적인 주행을 이어갔다. 렌스틴은 한 쪽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지면 해당 바퀴는 순간 잠그고 접지력이 살아 있는 다른 바퀴에 힘을 몰아주는 차동기 어작점장치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쿨멘은 뉴 아레나와 비교해 스티어링 휠도 조금 무겁고 서스펜션은 단단하게 세팅됐다. 또 KGMobility는 뉴 아레나와 달리 오프로드 주행이 많은 쿨멘에 옵션을 추가해 서스펜션 높이를 10mm 가량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쿨멘은 온로드에서도 넘치는 힘을 과시했다. 정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생각보다 빠르게 치고 나갔다.

기본적으로 뉴 아레나와 쿨멘의 사양은 비슷하다. 파워트레인인 최고출력 202마력, 최대토크 45.0kg·m로 동일하다. 다만 뉴 아레나는 8단 자동변속기, 쿨멘은 아이신 6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했다.

가격은 뉴 아레나는 트림에 따라 ▲프리미엄 3979만원 ▲노블레스 4553만원 ▲더 블랙 5173만원이다. 쿨멘은 화물 적재 용량에 따라 3478만원부터 4046만원까지 책정됐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R&D 혁신으로 미래 그린 에너지 산업 선도” 기아, 전기SUV ‘EV9’ 사전계약 ‘1만대’ 돌파

SK이노베이션 김준 부회장 대전환경과학기술원 방문 R&D 현안 점검·구성원 격려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이 대전 환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R&D 현안을 점검하고,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김 부회장은 “환경과학기술원은 올 타임 넷제로(All Time Net Zero) 달성을 위한 그린 포트폴리오 디자이너 & 디벨로퍼라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미래 그린 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연구개발(R&D)의 주역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김 부회장이 기술원 내 분석솔루션센터, 환경기술연구센터 등을 찾아 구성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기술원의 미래비전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부회장은 기술원 구성원 소통 프로그램인 ‘더 해피스트데이(The HappyEST Day)’ 현장도 깜짝 방문해, 물품 기부를 통해 행복 나눔을 실천하는 구성원들을 응원하며 격의 없는 소통에 나섰다. 구성원들은 물건 나눔뿐 아니



SK이노베이션 김준 부회장(오른쪽)이 15일 대전 환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구성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라 즉석 사진,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주제로 한 오락기 등을 즐겼다.

김 부회장은 이후 미래 그린 에너지 R&D를 위한 향후 40년의 각오를 다지는 식수 행사에 참석했다. SK이노베이션 R&D 경영이 태동한 1983년에 태어난 대표구성원, 기술원 경영진 등과 함께 소나무의 한 품종인 반송(盤松)을 심었다. 이 자리에서 김 부회장은 “올해는 탄소 저감 및 전력화(Electrification)를 지향점으로 한 미래 그린 에너지 사업 본격화의 원년”이라며 “미래에너지 시장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R&D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과학기술원은 SK이노베이션 R&D 경영의 시초로, 지난 40년 간 SK이노베이션 계열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어왔다”며 “향후 40년도 지속적인 R&D 혁신을 통해 암모니아, 폐배터리 재활용(BMR·Battery Metal Recycle) 등 미래에너지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데 역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SK이노베이션은 ‘종합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고(故)최종현선대회장의 선구안에 따라 R&D 경영을 도입했다. 1983년 SK이노베이션의 전신인 유공에 ‘기술지원연구소’ 조직이 처음 생겼고, 1985년 울산에 실제 연구소 시설이 설립됐다. 울산 기술지원연구소는 정유업계 최초의 R&D센터로 몇 차례 개편을 거쳐 현재 환경과학기술원으로 자리잡았다.

기술원은 고급 윤활기유, 전기차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용 분리막(LIBS) 등 신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며 SK이노베이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국내 최초 3열 대형 전동화 SUV

기아의 플래그십 전기 SUV ‘더 기아 EV9(이하 EV9)’이 출시 전부터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기아는 EV9의 사전계약이 1만대를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최초 3열 대형 전동화 SUV EV9은 웅장함이 돋보이는 외관과 새로운 차량 경험을 선사할 실내 공간을 갖췄다. 또 99.8kWh 대용량 배터리 기반 501km의 1회 충전 주행거리(※19인치 휠 2WD 모델 산업부 인증 완료 기준)를 달성했으며 최고 수준의 신기술도 대거 적용됐다.

지난 3일 시작한 EV9의 사전계약은 기본모델(에어·어스 트립)과 GT-line으로 진행했는데 영업일 8일만인 지난 15일 마감기준 1만 367대가 접수됐다.

기아 전동화 라인업의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인 EV9은 K9(2012년, 15영업일 3201대)·모하비(2019년 11영업일 7137대) 등 기아의 역대 플래그십 차종의 최종 사전계약 대수를 훌쩍 넘어서며 국



기아 ‘The Kia EV9’.

내 최초 3열 대형 전동화 SUV로서 새로운 영역 개척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EV9을 사전계약한 고객의 86%는 ▲듀얼 칼라 엠비언트 라이트 ▲1열 릴렉션 콤포트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을 갖춘 기본모델의 ‘어스’ 트림과 ▲전용 디자인 사양 ▲부스트 ▲스몰큐브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등 고급감이 높은 사양이 기본 적용된 GT-line을 선택했다.

/양성운 기자

HMM, 신용등급 BBB+ ➡ ‘A-’ 상향

사업경쟁력·재무대응력 우수

HMM이 국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기업신용등급 ‘A-’(안정적)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와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2022년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진행한 기업신용평가에서 HMM의 기업신용등급을 기존 ‘BBB

’에서 ‘A-’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2월 ‘BBB’에서 ‘BBB+’로 상향된지 5개월만이다. 나신평과 한신평은 공시자료를 통해 HMM의 견조한 사업경쟁력과 우수한 재무대응력을 신용등급 상승 요인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한국기업평가(한기평)로부터 ‘A-’(안정적)를 받은 HMM은 이로써 국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

두 ‘A-’등급을 획득하게 됐다.

나신평은 HMM이 원양 컨테이너 선사로 선복량 기준 국내 1위, 글로벌 8위의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선종 다변화 및 운영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회사사업기반의 안정성이 제고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신평은 HMM이 컨테이너 시황에 민감한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나, 시황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우수한 재무완충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허정윤 기자

에어서울, 1분기 매출 848억·영업이익 269억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달성

에어서울이 올 1분기, 창사 이래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에어서울은 2023년 1분기 매출 848억, 영업이익 269억원으로 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317% 늘었고, 영업이익은 520% 증가, 영업이익률은 31.7%에 달한다.

에어서울은 2022년 4분기에도 영업

이익 79억 원의 흑자를 달성하며 빠르게 실적 턴어라운드에 돌입했다.

에어서울은 측은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에 따라 검역 및 출입국 규정 변화에 발맞춰 국제선 수요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한 것이 실적 개선을 이끈 주된 요인”이라며 “적시적기의 일본 노선 확대와 수익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노선 운영 전략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이통사 실적 개선 위한 비장의 카드… ‘AI·B2B·모빌리티’

〈인공지능〉 〈기업 간 거래〉

SKT 감성 대화 기반 AI 선배
KT 클라우드 분야 DX 이끌어
LGU+ 중견·中企 영역 늘리고
모빌리티·ESG 경영 확대 전략



이통 3사 로고.

/각사

이동통신사들이 2분기 이후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AI), B2B(기업간거래), 메타버스 및 모빌리티 사업에 사활을 건다.

SK텔레콤은 6월부터 AI 에이전트인 ‘에이닷’에 대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스캐터랩과 손잡고 소셜 및 지식대화 능력을 갖춘 AI 언어모델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KT는 모바일 IPTV 사업 성장을 지속해 개시카우 역할을 강화하고, 디지털 B2B 사업과 관련해 하반기에 수주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ESG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구입에 나선다.

SKT 손인혁 에이닷 추진단 미래기획팀 담당은 “6월부터 에이닷에 대해 대

규모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다”며 “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과는 감성 대화 기반 AI 에이전트를 선보여 지식 및 감성을 갖춘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손 담당은 AI 등 분야에서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MWC에서 글로벌 통신사와 AI 공동 구축을 위한 얼라이언스를 제안한 바 있다”며 “LLM(초거대 언어 모델)을 주도하는 빅테크와 제휴도 병행하고 있어, 글로벌 진출에 상대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SKT는 또 텔코에 통화 내용 브리핑 등 AI 전화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또 유저 친화적 사용자 경험(UX) 개편

과 개인화 기반 홈 화면 개편, 14세 이하 유저 진입 장벽도 낮춘다는 전략이다.

SKT는 초거대언어 모델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상반기 중 초거대 AI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연내에는 멀티 LLM 구조에 적합한 ‘통합 랭커’를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KT는 클라우드 분야에서 초거대 AI 시대를 앞둔 기업들의 DX를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KT클라우드에는 AI, 인프라, 미들웨어 솔루션, 연산훈련, 응용 AI 생태계를 풀스택으로 준비 중이다. 최근에는 IMM크레딧앤솔루션으로부터 6000억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KT는 모바일 IPTV 사업을 성장시키고 프리미엄 중심 고객 기반 확대와

함께 고객 세분화 타겟 마케팅을 강화하고, 부가서비스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KT김영진최고재무책임자(CFO)는 “AI 기반 DX 서비스 제공 역량과 IDC, 클라우드 인프라를 갖고 있으며 네트워크 기반 DX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내의 DX 수요를 이끌어왔다. 앞으로 도 DX 수주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업무의 자동화 효율화 등 구조적 비용 개선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AI를 활용한 네트워크 관제에 대한 자동화 지능화 솔루션을 확대하고, 단순 업무 로보틱처리자동화(RPA) 솔루션도 도입해 DX 역량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AI컨택센터(AICC), 개통, 사후서비스(AS) 등 자동화를 확대해 비용 효율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모빌리티 사업과 스마트팩토리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임창혁 기업신사업그룹장(전무)은 “국내 대표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솔루션 기업인 LS일렉트릭과 협약을 통해 기존 대기업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 및 중견기업까지 사업 영역을 늘릴 것”이라며 “각 공장 특성과 니즈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비용의 솔루션을 제공해 시장 내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토요타자동차가 올 한해 출시되는 렉서스 등 전 차종에 LG유플러스의 날씨, 스마트홈, 뮤직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인포테인먼트서비스 플랫폼인 ‘유플러스 드라이브’를 탑재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ESG 경영 일환으로 2분기부터 재생에너지 구입을 본격 추진한다. 또 태양광 설비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또 2분기에 광고 플랫폼 등 새로운 플랫폼 사업을 통해 신사업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이외에 알뜰폰 오프라인 컨설팅 매장인 ‘알뜰폰 플러스’도 전국에 7매 매장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SK파워텍, 전기차 핵심부품 본격 양산

부산 신규 공장 시험가동 마쳐
SK㈜, 장비 도입 등 성장 견인

투자전문회사SK㈜는 SiC(실리콘카바이드·탄화규소) 전력반도체 설계·생산 자회사인 SK파워텍이 부산 신규 공장의 시험가동을 마치고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SK㈜는 지난해 SK파워텍 경영권을 인수한 후 추가 투자를 통해 생산 공정을 업그레이드하고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등 SK파워텍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

기존 포항 공장을 확장 이전해 지난 3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에 문을 연 SK파워텍 신공장은 이온주입기(Implant) 등 설비를 대폭 증설하는 한편 공정 최적화 등을 통해 4분기까지 기존 대비 3배 수준인 연산 2만9천장(150m



SK파워텍 품질팀 구성원이 6인치 웨이퍼 제품 출하직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SK

m/6인치 웨이퍼 기준) 규모의 SiC 전력반도체 생산능력을 갖추게 예정이다. 총면적 약 1,750평 규모의 4층 건물로 10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이 공장은 태양광과 전기차 영역 고

객사들의 주문물량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 이 중 절반 이상을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해외로 수출할 예정이다. SK파워텍은 올 4분기까지 공장 가동률을 100%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SK파워텍 부산 신공장은 특히 기술 협력과 인재 유치, 수출 등에 유리한 입지적 조건이 큰 강점으로 꼽힌다.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공유 등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파워반도체상용화센터(PSCC), 한국전기연구원 등 협력기관과 부산항 등 수출 인프라와 인접해 있다.

SK파워텍은 ▲글로벌 최고 수준 제품 경쟁력 확보 ▲전기차 시장 본격 진출 ▲파운드리 공급 확대 ▲신규 공장 선제 증설 등 중장기 전략을 통해 2026년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성

장한다는 목표다.

SK㈜자회사인 SK실트론의 SiC 웨이퍼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시너지도 SK파워텍의 강력한 경쟁우위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력반도체는 전기차, 전자제품, 5G 통신망 등에서 전류 방향과 전력 변환을 제어하는 필수 반도체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는 전력반도체 시장 규모가 지난해 308억달러(약 41조원)에서 2026년 384억달러(약 51조원)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차세대 전력반도체로 꼽히는 SiC 전력반도체는 기존 실리콘(Si) 전력반도체 대비 약 10배의 전압과 수 백도의 고열을 견디는 장점을 갖고 있어 기존 시장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김양택SK㈜첨단소재투자센터장은 “SK파워텍 부산 신공장 증설을 통해 SiC 전력반도체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현대위아

EV9·뉴 코나에 탑재될
‘냉각수 허브 모듈’ 생산

현대위아가 전기차용 열관리 시스템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현대위아는 전기차 전용 열관리 시스템 중 하나인 ‘냉각수 허브 모듈’의 개발을 마치고 생산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생산은 현대위아 창원1공장에서 연 최대 21만대 규모로 이뤄진다.

국내 자동차 부품사가 냉각수 허브 모듈을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냉각수 허브 모듈은 기아의 ‘더기아 EV9’과 현대차의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등에 탑재된다.

현대위아가 개발한 냉각수 허브 모듈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와 구동장치 및 전장 부품의 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부품이다. 이 모듈은 구동 부품과 배터리 냉각을 담당하는 별도의 장치를 기능적으로 통합해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양성운 기자 ysw@

노인 삶의 질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CJ올리브네트웍스 프로그램 확대

CJ올리브네트웍스가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뜻으로 글을 자유롭게 읽는 것처럼 디지털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최근 산업 전반이 비대면의 일환으로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등 디지털로 바뀌면서 시니어 연령층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IT서비스기업으로 현대 사회의 문제에 공감하여 ESG 전략과제로 ‘디지털 접근성과 리터러시 향상’을 선정, 지난해부터 시니어 디

지탈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매일유업’과 ‘케어유’가 함께 협력한다. CJ올리브네트웍스 임직원 봉사자 400명은 상반기 3곳, 하반기 5곳 등 8곳의 노인사회복지관에 방문해 총 40회차 교육을 진행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혜 지역도 확대했다.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크게 ▲스마트폰 교육 ▲키오스크 교육 ▲키오스크 현장실습 등 3개 과정으로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최빛나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한화큐셀, 탠덤 셀 파일럿 설립 구축

충북 진천공장에 1365억 투입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차세대 태양광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기반 탠덤 셀(탠덤 셀) 양산을 본격화한다.

한화큐셀은 충북 진천공장에 1365억 원을 투입해 탠덤 셀 및 모듈의 양산을 위한 파일럿 설비를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설비는 진천공장에 들어서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험 가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소규모 시험 생산 라인을 운영 중인 독일 탈하임 R&D 센터와 협력해 오는 2026년 하반기 탠덤 셀을 본격 양산하기 위해서다.

이번 투자로 경쟁 고효율 제품으로 꼽히는 탠덤과 헤테로접선 모듈보다



한화큐셀 진천공장 전경.

16% 이상 발전 효율이 뛰어난 탠덤 셀 기반 모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탠덤 셀 및 모듈 파일럿 설비를 운영하면서 안정적으로 고효율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공정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구영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한국과 미국, 독일 등 3개국을 잇는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효율을 갖는 탠덤 셀 양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LGU+

취준생 구직 사이트 이용 시
데이터 무료 ‘제로레이팅’

LG유플러스가 취업을 준비하는 고객들의 통신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직 사이트 이용 시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로레이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제로레이팅이란 통신사업자가 특정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 접속 시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운영 정책이다.

LG유플러스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구직 사이트 접속 빈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운영하는 구직 사이트를 대상으로 제로레이팅을 적용기로 했다. /채윤정 기자

버스 속
소소한 재미
버스족(族)
BUS JÖK

버스 매일 탑승하시나요?
서울 시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선물합니다.



[버스족 이벤트 참여 방법]

- 1 서울 시내 버스를 타고
YapTV 속 콘텐츠를 본다.



- 2 영상 속 QR코드를 촬영한다.
※ 버스족 앱의 QR촬영 카메라만 참여 가능!



- 3 이벤트 참여하면
[다양한 브랜드] 선물이 쏩!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버스족을 검색하세요.



“서울 아파트거래량 늘었지만 부동산시장 회복은 아직”

1~4월 거래량 9642건, 89.5% 늘어
일부지역 급매소진 이후 가격 상승세
매매심리 77.3, 전주대비 1.1p 올라

고덕그라시움 59㎡ 이달 12억 거래
지난 3월 10.9억, 두달만에 1.1억 ↑

급매물이 일부 해소되고 가격 하락폭도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서울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선 상승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 ‘집값 바닥론’까지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64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5087건) 89.5%(4555건) 증가했다. 지난 3월 거래량은 총 2979건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했고, 2021년 8월(4065건)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다 거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이 서울 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래량이다. 4월 거래량의 경우 2787건을 기록했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량은 전달 거래량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매심리도 회복세를 탔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8일 기준)는 77.3으로 전주(76.2)보다 1.1포인트(p) 상승하며 지난 3월 넷째 주(70.6) 이후 계속 회

복하는 모양새다. 기준선 10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여전히 매수세가 약한 모습이지만,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 대책과 최근 급매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10주째 올랐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 거래가 늘면서 일부 지역에선 급매 소진 이후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그라

시움’은 이달 전용면적 59㎡가 12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3월 거래가격(10억9000만원) 대비 1억1000만원 상승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은마아파트’는 지난 1월 전용면적 84㎡가 21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3개월 만에 거래가격(23억3000만원)이 1억8000만원 올랐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엘스’는 이달 전용면적 59㎡가 18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거래가격인 16억원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12.5%(2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회복 신호에도 본격적인 상승세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했지만, 집값 대세 전환으로 평가할 만한 추격 매수세가 없다”면서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대세 상승으로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서학개미, 3배 추종상품 담고 유럽 원정매수

해외주식 Click

지난주 벤치마크 추종상품 767억 매수
지난달 美 증시서 45억 팔아치우고
유럽서 5억 매수… 쏜증시 하락 배팅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투기 종목에 집중하며 3배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선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증시 혼조에 유럽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개인 투자자도 늘고 있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지난주(5월 8일~5월 15일) 서학개미들은 ‘디렉시온 데일리 만기 20년 이상 국채 볼 3배(TMF)’ 상장지수펀드(ETF)를 767억 원 어치 순매수했다. 해당 종목은 만기 20년 이상 장기 국채들로 구성된 벤치마크의 하루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상품이다.

3배 레버리지 상품은 꾸준히 인기를 끌며 추가되고 있다. 이번 주에는 ICE 반도체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 따르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배(SOXL)’ ETF, 미국 대형 석유회사들의 하루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파

이크로섹터 미국 빅 오일 지수 3배 레버리지(NRGU)’ 상장지수증권(ETN)이 추가됐다. 이외에도 미국 바이오 택 기업 186곳을 균등한 지수로 3배 따르는 ‘디렉시온 데일리 SP 바이오 택 볼 3X(LABU)’ ETF와 ‘BMO 마이크로섹터 US 빅 오일 인덱스 3X’ ETN가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미국에서 유럽 시장으로 원정매수를 떠나는 서학개미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학개미들은 미국 증시에서 약 45억 원을 순매도하며 돌아섰고, 유럽 증시에서는 5억원 가량을 순매수했다. 서학개미들은 영국 증시에서도 하락세에 배팅하는 ‘3배 숏 상장지수상품(ETP)’ 상품을 주로 사들이는 모습이다.

삼성증권이 고객들의 유럽 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을 분석한 결과, 서학개미들이 영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레버리지 셰어스 엔비디아 3배 숏(NV3S)’ ETP다. 순매수 금액은 9억8425만 원 가량이다.

이외에도 메타(META) 주식 하락에 배팅하는 ‘레버리지 셰어스 페이스북

(메타) 3배 숏(FB3S)’ ETP를 1억2139만 원 순매수했다.

미국 증시에서도 레버리지·인버스 투자가 가능하지만 해당 ETP처럼 변동성을 3배나 높인 상품은 찾기 힘들다. 숏 투자를 통해 이익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되지만, 3배 ETP는 커지는 수익만큼 손실 규모도 크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당부된다.

전체 순매수 상위 종목 2위를 차지한 탑 파이낸셜 그룹(ZHONG YANG FINANCIAL GROUP LTD)에 대한 투자도 주의가 필요하다. 탑 파이낸셜 그룹은 지난해 미국 증시에 상장한 홍콩 소재의 주식·선물 중개업체이다. 지난 4월 말에 레드(커뮤니티)에서 언급되며 장 중 1182%까지 폭등하면서 밈 주식으로 부상했다. 다만 뚜렷한 근거가 없이 오른 주가이기 때문에 예외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들은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LTD-A ▲SCHWAB USDIVIDENDEQUITY ETF ▲ELILILLY & CO ▲J.P. MORGAN NASDAQ EQUITY PREMIUM INCOME ETP 등을 사들였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증권, 영업이익 3416억 ‘업계 1위’

1분기 61% 증가 ‘어닝 서프라이즈’
당기순이익 66% 증가한 2526억

삼성증권이 리테일 자산관리 부문의 성장과 채권 운용 수익 확대에 대형 증권사 중 영업이익 1위를 기록하는 등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16일 삼성증권은 지난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61%, 66.4% 증가한 3416억원, 252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영업실적은 현재까지 발표된 미래에셋증권(2817억원), NH투자증권(2515억원), 한국투자증권(2871억원), KB증권(2642억원) 등 빅5 증권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삼성증권은 자산관리(WM) 부문에서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지난 2000년대 초 업계 최초로 자산관리 비즈니스를 시작한 이후 2010년에 자산 30억원 이상 초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SNI 서비스와 2022년 디지털 고객자산가 대상 ‘S.Lounge’ 서비스 등을 론칭하는 데 힘입어 1억 이상 고객 수가 전분기 대비 15.5% 증가했다.

또한 탄탄한 리테일 고객군과 강한 증시 반등에 힘입어 순수탁수수료가 전



분기보다 42%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판매수익도 전분기보다 11% 늘었다.

삼성증권의 1분기 1인당 생산성은 빅5증권사 중 최고 수준이다. 삼성증권의 1인당 생산성은 1억3200만원으로 미래에셋증권(7900만원), NH투자증권(8000만원), 한국투자증권(9900만원), KB증권(8800만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경영 효율성을 보여주는 자기자본이익률(ROE)도 최고 수준이다. 삼성증권이 발표한 1분기 연결기준 ROE는 16.1%로 한국투자증권 14.3%, NH투자증권 10.2%, KB증권 9.7%, 미래에셋증권 8.6%보다 높았다. /원관희 기자

수도권 광역 예약버스 운행횟수 6배 확대

8월까지 50개 노선, 총 243회로

수도권 광역 예약버스가 오는 8월까지 경기 안성·평택 등 50개 노선 243회 운행으로 대폭 확대된다. 광역 예약버스는 좌석예약제가 적용되는 광역버스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6일 경기도, 버스 운수사 등과 간

담회를 열고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광역버스 좌석예약은 모바일 앱 ‘미리’(MiRi)로 자리를 예약한 뒤 정해진 시간에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음 달 초 기준 경기 고양·수원시 등 23개 노선에서 39회 운행하는 광역 예약버스는 오는 8월까지 노선을 50개로 2배 늘리고, 운행 횟수도 243회로 6배

확대할 계획이다. 또 롯데카드 앱(디지털로카)을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다. 네이버·카카오 계정과 연동한 앱 간편 회원 가입도 제공한다.

아울러 노선, 시간, 정류소 즐겨찾기 기능을 추가하고 예약 버스 차량 번호와 함께 도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 혼선 방지를 위해 예약버스에는 전용 로고를 부착하는 한편 일반 버스와 탑승 장소를 분리한다. 고장 등으로 예약버스 운행이 어려울 때는 즉시 알릴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코덱스 SOFR 금리 액티브 ETF 2000억 돌파

삼성자산운용, 상장 40여일 성과

삼성자산운용은 지난달 4일 상장한 KODEX SOFR 금리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40여일 만에 순자산 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KODEX 미국달러SOFR금리 액티브 ETF는 미국 SOFR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상품이다.

SOFR(Secured Overnight Financ

ing Rate)는 미국채를 담보로 하는 1일 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일 산출되는 미국의 무위험 지표금리다.

듀레이션 1영업일의 초단기금리를 복리로 쌓아가는 지수 특성상 미국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지난해에도 자본손실 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며 우상향했다.

/원관희 기자

생활·로컬 분야 자영업자 역량 키워, 혁신 ‘라이콘’ 만든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안
대학생·MZ세대 창업 체계적 지원
지역기업과 함께 장인학교 운영
성장단계별로 글로벌 진출 추진
아이디어 발굴 등 민간금융 연계

정부가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생활분야 자영업자를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적극 육성한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 발굴·창업→비즈니스 모델 고도화·확장→민간금융 연계 통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육성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브랜드도 유니콘(Unicorn), 데카콘(Decacorn) 등을 연상시키는 ‘라이콘’(LICORN·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으로 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오후 서울 마포 연남장에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서대문구 연남장에서 열린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 발표 및 토크쇼에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를 통해 중기부는 소상공인 창업 분야에 창의인재를 육성한다. 최근 늘어나는 대학생 창업과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대학 내 생활산업 전공자에게 창업교육을 부전공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지역기업들과 함께

콘텐츠에 기반한 장인학교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혁신허브라는 거점 공간을 마련해 기존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변화시킨다.

중기부는 또 성장단계별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한다. 아이디어의 발굴부터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와 확장을 지원하고 민간금

융도 연계한다.

민간 선투자 연계형 매칭융자를 도입해 민간이 1억원을 투자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로컬크리에이터가 중심이 되는 상권창업도 촉진한다. 역사, 문화 등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상권창업을 촉진해 소상공인을 로컬브랜드로 키워내고 세계인이 찾는 콘텐츠 상권과 도시를 만든다.

스케일업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중기부는 민간혁신가 주도할 수 있도록 상권기획자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중심의 커뮤니티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돕는다. 투자펀드 조성, 사업권 투자, 자본전환계약 제도 등 다양한 투자제도를 통해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혁신창업붐을 소상공인 분야에서도 이룬다.

중기부는 이날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잠재력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해 ‘라이콘 기업’(LICORN) 브랜드도 발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소상공인을 더 이상 소상공인이라 부르지 않고 라이프스타일이나 로컬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유니콘 기업이라는 이름의 ‘라이콘’으로 새롭게 브랜드했다”고 설명했다.

정책발표 후 복순도가, 도레도레, 삼진어묵, 재주상회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영 중기부 장관과 토론하는 등 토크쇼도 가졌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의 경우 보호와 지원 위주였고 성장·육성은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에 집중돼 있었다”며 “기술 중심의 창업·벤처 정책과 우리 삶의 가치를 높이는 생활·로컬분야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새롭게 육성해 지역을 살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진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연 ‘로지텍스 서포터즈 3기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진

한진, 물류 분야 ‘지식공유’ 활동 확산

로지텍스 서포터즈 3기 발대식
관련 학과 대학생·사회 초년생 선발

한진이 ‘로지텍스 서포터즈’ 3기 발대식을 열고 물류 분야의 다양한 지식 공유에 나섰다.

16일 한진에 따르면 ‘로지텍스’는 2021년 11월에 한진이 물류산업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업계 최초로 론칭한 물류 전문지식 공유 플랫폼으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물류 전문가 매칭 서비스, Q&A, 물류 트렌드 및 인사이드, 커뮤니티 채널 등 물류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물류업계 종사자의 실무 이해도 향상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물류 고민 해결, 물류 관련 학과 대학생이나 일반인의 생활 속 물류 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한 전문지식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전문가로 등록된 회원은 컨설팅 활동을 통해 부가수입 창출도 가능하다.

한진은 지난해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친 서포터즈 1기와 2기의 뒤를 이어 3기 역시 국내 최대 청년 물류 연합 단체인 한국청년물류포럼 소속의 물류 관련 학과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 25명을 선발한다. /김승호 기자 b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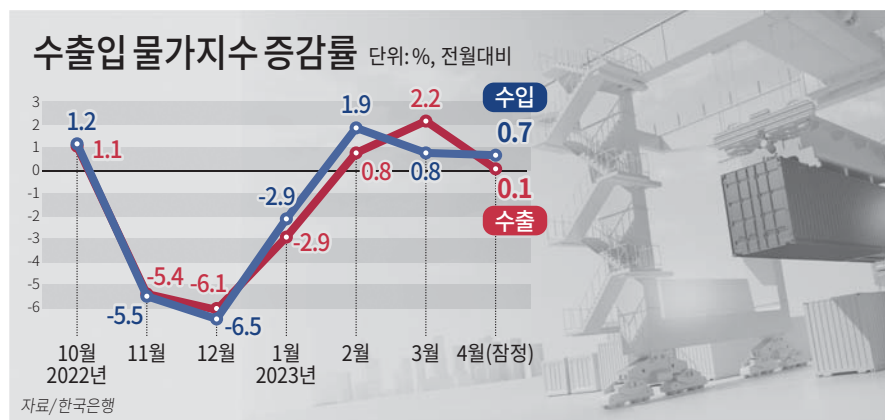
고환율 지속 ‘수출입물가’ 전월比 0.7% ↑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올라
국제유가 배럴당 83달러대 ↑ 영향
이달 물가 소폭 상승할 것 예상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입물가가 소폭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3달러대로 오른 영향이 컸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5월 물가 상승률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3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39.81로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수입물가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국제유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월평균 가격은 지난달 배럴당 83.44달러로, 지난 3월 78.51달러와 비교해 6.3% 올랐다. 원·달러환율도 지난 3월 1305.73원에서 4월 1320.01원으로 같은



기간 1.1% 상승했다.

그 결과 광산품을 중심으로 원재료가 전월 대비 1.9% 상승했다. 중간재는 제1차금속제품이 올랐지만,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내리며 0.4% 하락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1.6%, 0.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입물가상승분은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상승한 117.92를 기록했다. 반도체 가격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오른 영향이다.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3.6%)가 내렸지만, 화학제품(1.2%), 제1차금속제품(2.1%) 등이 오르며 공산품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농림수산물도 전월 대비 0.6% 하락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올 스마트상점 보급사업 1.3만여 명 몰려

높은 인건비 등 부담에 경쟁률 3대 1

정부의 스마트상점 지원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혁신을 도모하려는 소상공인이 올해 폭발적으로 늘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4월부터 접수받은 ‘2023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이 약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모집이 끝났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 시 비용

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4400점포 내외(일반형 4000개, 미래형 400개)로 한 달 간 1만3000여 명의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작년에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 12월까지 10여 차례 추가 모집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지원자가 몰린 것은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인한 영향이 컸다. 아울러 최저임금 상승 및 인력 부족 등 구인난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스마트기기 수요가 증가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김승호 기자

인력기반 물류현장 구인난 여전해
고용확대·스마트화 전환 지원 필요

지난 1분기 물류기업 절반의 매출 실적이 코로나 기간이었던 전년 동기 대비 부진했지만, 10곳 중 7곳은 작년 이상 규모로 채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물류기업 19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이후 물류기업의 경영전망 조사’에 따르면 물류기업 47.2%의 올해 1분기 매출 실적이 코로나 기간이었던 작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가’와 ‘비슷’ 응답은 각각 28.4%,

24.4%에 그쳤다. 코로나 때 실적이 더 나았던 물류기업이 많았던 셈이다.

매출이 감소한 기업의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물동량 감소’(83.7%)와 ‘운임 하락’(39.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실제로 해상 컨테이너 운임은 작년 1분기를 기점으로 하락 추세로 나타났다.

코로나 시기 운송체계 혼란으로 실수요와 별개로 운임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바 있지만, 운송체계 정상화와 더불어 경기침체를 맞아 물동량이 감소하고, 운임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은철 대한상의 유통물류정책팀장은 “IT기반의 디지털 혁신이 물류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인력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물류현장에서 구인난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는 택배, 화물운송, 수출입 물류현장에서 외국인 고용 확대가, 중장기적으로는 물류자동화·스마트화 전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진했던 상반기 실적에 이어 물류기업의 절반은 코로나 위기단계가 하향된 하반기에도 물류시장의 경기가 나쁠 것으로 전망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식품업계 가루쌀 신제품 도전

농식품부, 생산단지 5배 확대

59개 제품·메뉴 개발 지원
선정 시 교육·장비 등 지급
생산량 전량 정부 매입

식품과 베이커리업계가 본격적으로 가루쌀 신 제품·메뉴에 도전하면서 정부가 내년 가루쌀 생산단지를 올해 대비 5배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도 1만 헥타르(ha)의 가루쌀 생산단지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15개 식품기업의 19개 가루쌀 제품개발과 지역 베이커리 20개소의 40개 새로운 메뉴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가루쌀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루쌀 제품개발에는 농심, 삼양식품, 하림산업, SPC삼립, 삼양식품, 풀무원, 해태제과 등을 비롯해, 성심당(로쏘) 등 전국 2대 빵집이 참여해 올해 연말 면류, 빵류, 과자류 등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서울의 하이그라운드제빵소, 인천의 토모루, 경기도의 이학순베이커리, 대전의 콜마브레드, 세종의 세종명가살빵 등 유명 베이커리 업체들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가루쌀 산업 활성화 미래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가루쌀 메뉴 개발에 참여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가루쌀 1만톤 공급을 위해 38개 생산단지 2000헥타르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엔 이들 식품기업의 가루쌀 수요 확대에 대비해 재배면적을 올해보다 5배 늘린 1만헥타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가루쌀 생산량은 내년 5만톤, 2025년 8만톤, 2026년 20만톤 규모로 확대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농협 등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해 내년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지원사업에 기존 식량작물공동경영체가 아닌 신규 조성하는 생산단지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루쌀 재배 최소 면적도 50헥타르 이상에서 30헥타르 이상으로 줄이는 등 더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벼 재배면적이 3000헥타르 미만인 시군의 경우 20헥타르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가루쌀 재배단지로 선정되면 단지 공동운영과 재배 확대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지원을 받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경영체는 공동육묘장, 농기계 등 가루쌀 생산 확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또 가루쌀 생산단지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전략작물직불금을 헥타르당 100만원(이모작 시 250만원) 지급하고 생산량 전량을 정부가 매입한다.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려면 이달 31일까지 시·군·구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의 공고란 또는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도시농업, 10년 만에 약 200% ↑ 성과

참여자·텃밭면적 각 220%·180% ↑

도시농업 육성정책 10년만에 참여자는 220%, 텃밭면적은 180% 늘었다.

농촌진흥청은 도시농업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개원 7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해 오는 18일 전북혁신도시에서 도시농업 춘계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방안을 찾고자 육성을 본격화한 도시농업은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한 지 올해로 꼭 10년을 맞는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농업의 최근 경향인 여가와 건강, 기후변화 등을 반영해 수립하고 있는 도시농업의 정책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제기된 도시농업의 현황을 돌아보고 발전방안을 찾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1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이진희 사무관(도시농업 3차 5개년 정책 및 실천계획(안)) △상명대학교 김태한 교수(도시농업 추진 성과와 발전방안) △제주대학교 오욱 교수(도시농업 실태분석 및 전후방산업 분류)가 주제발표를 한다.

2부에서는 유은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관이 ‘도시농업의 사회적, 환경적 및 경제적 가치 평가’에 대해 소개



도시농업의 주요 분야인 텃밭가꾸기. /농진청

할 예정이다. 이어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김진덕 대표가 ‘현장에서 바라본 도시농업의 변화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도시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3부에서는 이연숙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광진 도시농업과장, 경상국립대학교 허근영 교수, 조경시공연구소 느티 안명준 대표, (사)초록에서 전태평 대표와 도시농업 관련 시민단체, 도시농업 종사자, 도시농업 연구자 등이 참석해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김광진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과장은 “그간 공간과 환경 조성 기술을 개발하고 텃밭 다양성 증진을 위한 자원 발굴과 교육·문화·치유에 이르는 활용 자원 개발에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새로운 도시농업의 방향성을 세우고 이를 실현할 동력을 찾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차상근 기자 skc8472@

산단 주민 2%, 중금속 농도 WHO 권고치 초과

(세계보건기구)

환경과학원, 45명에 의료지원
VOCs 대사체도 대상 포함
포항·울산 환경오염도 평균 상회

주요 산업단지 인근 주민 50명 중 1명꼴로 체내 중금속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9개 산업단지 주변 지역 환경오염도 및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이번주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가산단(광양·시화·반월·여수·울산·온산·포항) 7곳과 일반산단(대산·청주) 2곳을 대상으로 지난 4년(프로젝트 조사 제 3기: 2018~2022년)에 걸쳐 실시됐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총 2099명 가운데 45명의 몸속에서 검출된 중금속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를 초과했다. 납·수은·카드뮴·크롬 등의 물질이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권고치는 건강 보호를 위해 초과 시 노출 감시 및 저감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농도”라며 “이들 주민 45명에 대해 대해 노출량 및 노출경로 추가조사, 농도 저감 컨설팅, 건강진단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천대, 경상국립대, 순천향대구미병원, 순천향대전안병원, 울산대병원, 충북대병원 등과 연계한다.

국제 권고치가 없는 VOCs(벤젠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사체도 의료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대사체란 생체 내 물질변화의 결과로서 생성되는 물질을 가리키는데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의 전국 농도분포 중 벤젠 대사체 검출 상위 5%에 해당하는 값을 초과한 주민이 지원받는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악취를 일으키는 물질이고, 특히 벤젠의 경우 인체에 매우 유해한 발암성물질로 분류된다.

류된다.

환경과학원은 또 광양·시화·반월·포항·청주 등 5개 산단에서 기타상기 도질한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 추적조사에 돌입했다.

환경오염도 부문에선 포항과 울산 지역 산단의 대기 중 중금속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가 전국 평균을 다소 상회했다.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 환경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2018~2020년 사이 포항산단 내 납 수치가 0.032 $\mu\text{g}/\text{m}^3$, 울산산단 내 벤젠이 0.73 ppb를 기록했다.

지난 2003~2011년(제 1기) 국립환경과학원은 산단별 코호트 구축 및 건강검진, 생체내 물질 측정 등 추적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제 2기(2012~2017년)부터는 환경역학 감시체계로 개편, 매년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생체 모니터링 및 질병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범부처 수출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 수출 유망품목 30개 집중 지원

2030년 재생에너지 수출 5조 목표

정부가 수출 유망품목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 시장 수출확대 지원에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다. 재생에너지 수출은 2030년까지 5조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 유관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거점무역관 지정, 수출바우처, 해외자사화 사업 등과 연계하는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또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이 수출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국 시장 동향과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신성장 제조업·소비재·디지털/그린전환 등 3대 분야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대중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복귀기업을 활용

한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한 설비 이전, 국내 투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수출 확대 잠재력이 큰 재생에너지산업 수출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2조6000억원 규모인 재생에너지산업 수출을 2030년까지 5조원으로 끌어올리고 해외진출은 10조원을 목표로 잡았다. 재생에너지산업은 2021년 기준 국내 총 생산 12조 1000억원, 종사자 1만2000명 규모로 에너지 분야 핵심 산업이다.

정부는 우선 2030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 중국외감축분인 3750만톤의 이행을 위해 해외투자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한다. 우선대상국 중심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예산지원을 일원화하는 등 해외진출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녹색수출보험도 약 2000억원 규모로 추진, 금융조달을 지원한다.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개도국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지원과 시범사업을 통한 국내기업의 대상국 에너지 인프라 사업 참여도 활성화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공, 시설물 관리로 재해 예방한다

국토안전관리원과 협력체계 구축

한국농어촌공사와 국토안전관리원은 16일 시설물 안전 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관리 기술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시설물 안전관리 정책 자문 및 교육훈련 지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자문 및 정보교류 ▲정밀 안전진단 내실화를 위한 기술 검토회 전문가 참여 ▲현장 시연회 등 기술 교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시설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설물 관리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자문과 첨단 점

검장비 정보교류 등 세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은 농어촌공사에서 유지관리와 안전 점검 등을 수행하면서 많은 경험과 기술력이 집적된 만큼 시설물 안전 문화를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시설물 안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위험 요소를 예방해 안전한 삶을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2022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수상작!



블록버스터뮤지컬

아메도사우루스

2023. 6. 2(금) - 6. 25(일) 우리금융아트홀

© STUDIO EON / DAEWON MEDIA



예매 | 인터파크티켓 문의 | 02-764-9102

주최 | 대원미디어 주관제작 | 이지기획 마케팅 | 이제이컴퍼니



목포대에 국내 최초 화합물반도체센터 구축

GaN 시장 규모 연평균 59%↑ 전망
전 과정 일괄처리 기술지원체계
우수 인력 양성·채용 연계 진행

전남도가 국내 최초로 목포대학교에 화합물반도체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세계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화합물반도체는 전가차, 5G·6G 통신, 우주항공, 에너지 분야 등에서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국제 시장조사기관인 올 디벨롭먼트(Yole Development)에 따르면 대표적 화합물반도체인 질화갈륨(GaN) 시장 규모는 2021년 1억2600만달러에서 2027년 20억달러로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시장 전망 속에서 최근 목



전남도가 국내 최초로 목포대학교에 화합물반도체센터를 구축했다.

/전남도

포대에 구축된 센터는 화합물반도체 설계·제작(외주)·후공정 전 과정을 국내 최초로 일괄 처리하는 기술지원체계를 갖췄다.

제작은 국내외 화합물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윈세미(Winsemi)사와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담당하며, 센터는 전국 대학과 기업에 시제품 제작과 후공정 과

정을 지원한다.

특히 경기도 등 타 지역에 본사가 있는 웨이브피아(Wavepia) 등 10여개 화합물반도체 기업이 입주해 우주항공·통신 등 관련 반도체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기업 지원부터 센터 운영 전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목포대는 지난 3월 전국 11개 대학,

연구기관,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 했으며 화합물반도체센터를 중심으로 반도체 후공정 인력양성과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0명 이상의 교수와 함께 소재·공정설계·공정장비 등 맞춤형 교육을 학·석·박사, 실무인력에게 제공해 우수 인력을 지속 배출할 예정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전남도는 화합물반도체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등 반도체 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산업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합물반도체센터는 8월까지 구조 변경·기업 입주 절차를 거쳐 9월에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경남도, 소재부품 中企에 기술 고도화 사업 지원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주관
R&D·시제품 개발에 사업지 지원

경남도는 도내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진입 촉진을 위해 소재부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첨단 융복합기술 기반의 ▲소재부품 고급화 연구개발(R&D)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소재부품 분야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으로, 경남 양산에 위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가 사업을 주관한다.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는

표면처리 분야 전문 기관으로 2019년 7월 개소해 20여 명의 연구인력과 첨단 연구장비를 갖추고 있다.

경남도는 기업 공동 기술개발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R&D)과 업종전환 또는 수요처 요구형 시제품 개발을 위해 각각 4000만 원과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대상 기업은 도내 소재부품 분야 중소기업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참조해 오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는 28개사가 신청했고, 서류평가,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12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했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신안군, 우수한 자연환경 보호 나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협약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5월 15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문광선)와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조항 내용은 신안의 우수한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전 및 캠페인 공동 추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생태관광 활성화’, ‘현장 관리기관 간 업무 교류 활성화’ 등에 대한 사항으로 상호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영광군, ‘2024년 전남체전’ 개최

전남 최고의 스포츠 축제

전남 최고의 스포츠 축제인 2024년 전남체전이 영광군에서 개최된다.

영광군은 지난 15일 완도군 청해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62회 전남체전 폐막식에서 차기 개최지로 대회를 인수받고, 제63회 전남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내년 영광에서 15년 만에 개최될 제63회 전남체전을 앞두고 올해 개최지인 완도군에 홍보단을 파견해 홍보물 배포, 전문 MC의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 차기 개최지 영광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이끌어냈다.

특히 폐회식에서는 다음 개최지로 서 대회를 인수받고 영광군 홍보영

상을 상영해 전남도민의 축제의 장이 될 2024년 전남체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제62회 전남체전이 완도군 체육회를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열정 덕분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영광군에서도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내년 개최될 제63회 전남체전에도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63회 전남체전은“성공·행복체전, 안전·경제체전, 문화·관광체전, 화합·희망체전”을 기본목표로 2024년 4월 중 4일간 영광에서 개최된다.

/영광(전남)=양수영 기자

지역 이모저모

구례군

안전보건 관리체계 실태 점검

전남 구례군은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반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에 따른 이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평가, 종사자의견 청취 및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사항이다.

점검은 실무자 교육, 부서별 자체 점검, 전담 부서 순회 점검 순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군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전남)=양수영 기자

부산시

‘지방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강연

부산시는 16일 오전 9시40분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기회발전특구’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지방 주도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연을 개최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이전 기업에 과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로,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개혁 등 정책지원을 통해 지역에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내용으로 한다.

이날 강연은 대통령직인사위원회 지방균형발전특위의 상근 자문위원을 역임한 허문구 박사가 맡는다.

/부산=이도식 기자

대전시

꽃 정원 ‘치유의 숲’ 조성

꽃무릇, 수선화, 나무수국 등 꽃향기만 맡아도 힐링이 되는 ‘치유의 숲’이 대전에 조성된다.

대전시는 중구 무수동 대전 치유의 숲에 꽃무릇 6만4000포기, 수선화 3만2000포기, 나무수국 100그루, 거제수국 70포기 등을 심어 꽃 정원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봄과 함께 찾아오는 노란꽃 수선화, 가을 무렵 파란 잎 사이에서 붉은 꽃을 피우는 꽃무릇은 오는 9~10월 핀다. 또, 나무수국과 거제수국은 6월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6월 이후 대전 치유의 숲이 향기 가득한 감성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원승일 기자 won@

경북도

4차산업혁명 선도 사업자 모집

경북도가 16일부터 한 달간 2023년 4차산업혁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을 공개모집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모집에서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할 6개 사업자를 선정하며 최대 2년간 연간 1억원 내외의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경북도는 이 사업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41개 기술개발(R&D) 과제를 지원했다.

올해는 경북도의 중점 추진분야인 인공지능, 2차전지, 반도체, 메타버스, 수소연료, S MR(소형 모듈식 원자로) 등 분야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김해시, 10개 공공기관 청렴 클러스터 구축

부정부패 타파 퍼포먼스 참여

경남 김해시는 관내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청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렴 클러스터는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문화 조성과 범시민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참여기관은 김해시, 김해시의회, 김해교육지원청, 김해중부경찰서, 김해서부경찰서, 김해동부소방서, 김해서부소방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근로복지공단 김해지사 등이다.

참여기관은 각 기관 청렴시책 공유와 청렴활동 공동 노력,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제 발굴과 이행,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노력 할 것을 다짐하는 청렴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유기적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공공부문이 앞

장서는 청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전 기관장들이 부정부패 타파 퍼포먼스에 참여해 각종 부정부패, 비리, 관행 타파 의지를 새롭게 하고 이를 각 기관에 전파해 청렴 실천 의지를 확산한다.

김해시는 내외부 소통에 기반한 부패청렴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익명 부패신고센터인 김해시 청렴특을 개설했다. 청렴특은 올해 3월 실시한 내부 직원 설문조사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부패행위자 적발과 처벌 실효성 제고가 목적이다.

이달 말에는 지난 3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23년 김해시 청렴콘텐츠 공모전 심사를 마무리하고 채택된 청렴송과 청렴캐릭터는 청렴 정책 추진 시 적극 활용한다.

/김해(경남)=이도식 기자

“소·양 풀 뜯고 신선 먹거리로 요리체험… 딸기도 가꿔요”

Q 르포 | 매일유업 농어촌 테마공원 ‘상하농원’ 가보니

빠르게 변해가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전원 생활을 꿈꾸기 마련이다.

여기, 짧게나마 도시를 떠나 산천초목 사이에서 느림의 미학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너른 들판에서 소와 양들이 풀을 뜯고, 계절에 따라 갖가지 작물을 직접 수확해볼 수 있는 이곳은 ‘상하농원’이다.

매일유업이 2016년 4월 개장한 ‘상하농원’은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약 3만 평 대지에 ‘짓다, 놀다, 먹다’라는 컨셉트로 조성된 농어촌 테마공원이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광주송정역에 내려 차를 타고 한 시간 가량 이동하면 초록빛 넓은 들판과 유럽의 목장을 연상시키는 건물들이 눈에 들어온다.

농원회관과 매표소, 파머스마켓을 가장 먼저 방문할 수 있는데, 이곳은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로 늘 북적거린다고. 내부에 있는 작은 전시관에서는 소장중인 예술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농원회관 앞뜰에는 시즌별로 작물을 심는데, 기자가 방문했을 때에는 청보리를 수확한 직후였다.

옆에 위치한 다른 텃밭에는 옥수수가 심어져있었다. 밭 앞에는 심은 작물과, 심은 날짜, 수확 예정일이 적혀 있고 밭 사이사이에 작물을 심은 방문객 이름이 적혀있다. 수확철이 되면 농원을 찾아 직접 수확할 수 있음은 물론, 농원에서 대신 수확한 작물을 집으로 배송해주시기도 한다.

텃밭을 지나치면 ‘상하키친’에 도착

한다. 상하키친 옆 햄공방에서 직접 만든 햄과 소시지, 그리고 농원에서 경작한 신선한 먹거리로 건강한 요리를 선보이는 레스토랑이다. 파스타와 피자, 샐러드 등을 맛볼 수 있다. 햄공방은 통유리로 되어있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볼 수 있다. 수제 햄과 소시지는 파머스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다.

햄공방 옆에는 ‘농원식당’과 유리온실이 위치해있다. 상하키친이 양식을 전문으로 한다면 이 곳에서는 한식을 맛볼 수 있다. 농원식당 내부의 유리온실에서는 식탁 위에 올라가는 각종 쌈·채소가 자라고 있다.

상하농원에는 장인들이 공들여 건강한 식료품을 만드는 공간인 공방이 있다. 상하농원 밭에서 자란 과일과 야채로 잼과 청을 만드는 과일공방, 매일유업의 저온 살균 우유와 동물복지 유정란을 사용해 건강한 빵을 만드는 빵공방, 명인과 함께 직접 메주를 쑀어 된장과 간장 등을 담그고 발효시키는 발효공방이 있다.

관계자는 “요리에 관심있는 분들이 지역 각지에서 찾아온다”며 “가을에 장을 담그면 숙성·발효 후 이듬해 봄에 찾으러 오시라고 연락을 드린다. 방문이 어려우면 택배로 보내드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발효공방 마당에 햇빛을 받으며 맛있게 익어가는 커다란 장독들을 볼 수 있다.

상하농원은 연중 다양한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는 스트링치즈&피자 만들기 체험활동에 참



양혜영 명인이 발효공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위). 옥수수 텃밭 뒤로 파머스빌리지가 보인다. /신원선 기자

전북 고창군에 3만평 규모 조성
햄·빵 등 체험 가능한 공방 운영
딸기·블루베리 수확 프로그램도

양·당나귀 등 여유롭게 풀 뜯고
염소·토끼 등에 먹이주기 체험
내달 파머스빌리지 수영장 오픈

여했다. 관계자의 설명과 함께 수업이 진행되며 소요시간은 1시간 내외다. 준비된 빵반죽에 치즈와 올리브, 옥수수, 햄 등을 토핑하고 나면 직접 구워서 체험객들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공식 홈페이지 및 전화문의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참여할 수 있다.

이 달에 참여할 수 있는 또다른 체험 활동으로는 딸기 수확이 있다. 고창군 딸기연구회와 협약을 맺은 상하베리굿팜에서 진행되며 양질의 선향딸기를 직접 수확해 맛볼 수 있다. 체험에 참여한 아이들과 부모들은 딸기 모종을 심어보고 직접 수확하는 시간을 가졌다. 6월부터는 블루베리 수확 체험프로그램이 운



영된다.

상하농원을 방문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동물들과의 교감이다. 농원 안쪽으로 좀 더 걸어들어가면 젖소와 양, 당나귀 등이 사는 목장이 나온다. 울타리를 나와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들도 발견할 수 있다. 상하농원 관계자는 “소들도 원래는 축사 밖에 나와 돌아다니는데, 최근 구제역이 발생해 풀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넓은 목장 한켠에는 염소와 돼지, 토끼, 닭 등 작은 가축들이 사는 축사가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먹이주기 체험을 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가.

상하농원에는 참나무숲에서 노천탕과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파머스빌리지 스파와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파머스빌리지 수영장도 있다.

오는 6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파머스빌리지 수영장이 운영된다. 이 기간에 맞춰 상하농원은 ‘플캉스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숙박 기간 내 수영장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객실, 조식, 스파는 물론 농원식당의 버크셔K 흑돼지 정식 또는 흑돼지 샤브샤브 중 하나를 사전 예약하면 10% 할인을 받아 즐길 수 있다. 또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농작물 수확 체험과, 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 만들기 체험이 포함된다.

올해 수영장은 기존과 다른 모자이크 타일 공법으로 리뉴얼됐다. 또한, 달팽이 모형의 독특한 유아풀에서 미끄럼틀과 적절한 온도의 풀을 운영해 가족들과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카스 0.0’ 논알코올 음료 가정 점유율 1위

오비맥주, 1분기 점유율 30.2%
제조사 가정 점유율 38.6% 기록

오비맥주 ‘카스 0.0’가 1분기 논알코올 음료 가정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16일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맥주시장 1위 브랜드 ‘카스’의 자매 브랜드인 ‘카스 0.0’가 올 1분기 논알코올 음료 가정시장에서 30.2%로 브랜드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4.9% 포인트 성장한 수치이



다. ‘카스 0.0’는 지난해 8월 논알코올 음료 가정시장에서 첫 1위에 오른 이후 지금까지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1분기 제조사 가정시장 점유율에서도 오비맥주는 38.6%를 기록하며 급성장 중인 국내 논알코올 음료 가정시장을 이끌고 있다.

제조사 점유율은 작년 동기 대비 13.4% 포인트 성장한 수치다. ‘카스 0.0’외에 ‘버드와이저 제로’, ‘호가든 제로’ 등 오비맥주의 기타 논알코올 브랜드들도 가정시장 점유율 톱10에 올랐다.

회사는 ‘카스 0.0’가 인공감미료 없이 ‘스마트 분리 공법’으로 알코올만 추출해 낸 품질력과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발 빠른 마케팅 활동 덕분에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신원선 기자

GS리테일, 인공지능 레시피 하이볼 출시

‘아숙업 레몬스파클 하이볼’

세계 최초 인공지능(AI)가 제조한 레시피를 사용한 하이볼이 출시된다. GS리테일은 17일 ‘아숙업 레몬스파클 하이볼(사진)’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숙업 레몬스파클 하이볼은 업스테이지의 인공지능 챗봇인 ‘AskUp(애칭 아숙업)’과 대화해 만들었다.

챗GPT(chat GPT) 기반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AskUp’은 질문을 입력하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답해주는 대화형 메신저다.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대화할 수 있다.



제조사인 부루구루는 챗봇 AskUp에게 ‘맛있는 하이볼 레시피를 알려줘’, ‘하이볼 이름을 추천해 줘’, ‘당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가격은 얼마로 출시하는 게 좋을까’ 등을 묻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제품을 만들었다. /김서현 기자

더현대 서울에 맞춤 헬스케어 ‘킵더허들’

현대백화점서서 20억 투자

현대백화점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킵더허들’에 20억원을 투자하고 더현대 서울에 스토어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최근 2030 고객을 중심으로 건기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맞춰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킵더허들과 손잡고 MZ세대 맞춤 헬스케어 스토어를 선보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로 선보이게 될 헬스케어 매장은

단순 건기식 판매 매장을 넘어, 인공지능(AI) 기반의 설문과 약사의 건강 상담을 통해 필요 영양성분을 추천해주고 복용 방법 등을 코칭해준다. 각 고객 개인별로 맞춤 조제된 건기식 일체를 1회분씩 소분 판매하며 정기배송 구독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맞춤 혜택을 제공하는 ‘초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헬스케어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기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현대그린푸드 ‘부부의날’ 기념 상품 할인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오는 22일까지 공식 온라인몰인 그리팅몰에서 ‘부부의날(5월 21일)’을 기념해 인기 상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선 ▲근사한 시간을 선물해줄 특별한 요리 ▲함께 즐기면 더 즐거운 야식 ▲오고가는 대화 속 디저트 한입 ▲시원하게 목 축여줄 음료 한 잔 등 부부의 날을 기념해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4가지 테마의 인기 상품을 최대 25% 할인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쿠팡, 21일까지 ‘원피스 빅 페스티벌’

인기 브랜드 최대 80% 할인

쿠팡이 21일까지 연중 최고 규모의 원피스 할인전 ‘원피스 BIG(빅)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이는 쿠팡에서 ‘원피스’ 키워드 검색량이 5~6월 가장 많다는 데서 기획했다. 아피나르, 씨(Si), 이사베이, 비키, 페이퍼먼츠 등 인기 원피스 브랜드들이 참여해 최대 80% 할인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데일로엔 여성브

이넥 반팔 미니드레스 ▲엘쏘 여성용 오브리 햄번 롱 원피스 ▲아피나르 스퀘어넥 미니 원피스 등이 있다. 최저 5000원대 원피스를 포함해 총 8000여종의 상품을 만날 수 있다.

하루 특가 코너는 매일 오전 7시에 오픈한다. 16일은 ‘빠빠 잔잔체크 퍼프소 매 프릴 롱 반팔 원피스’, 17일은 ‘데일로엔 여성 브이넥 반팔 미니드레스’를 특가에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에이피알, 1분기 영업이익 사상 최대… IPO 기대감 ↑

분기 매출 1222억, 영업이익 232억
화장품·뷰티 디바이스 매출 증가
김병훈 대표 “기업가치 증명할 것”

에이피알(APR)이 이번 1분기에 역대 최대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을 갱신했다. 이에 따라 내년으로 예정된 기업공개(IPO)의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에이피알은 15일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2023년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0% 성장한 1222억원, 영업이익은 역대 최고 수준인 23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률은 19.0%에 달한다.

이번 1분기 실적의 또 다른 특이점은 광고 모델료 등을 다음 분기 등으로 나눠 계상하지 않고 1분기에 선반영했다는 점이다. 에이피알은 이달부터 방송인 유재석과 배우 정지소를 2023년 화장품 부문 광고 모델로 발탁해 캠페인 송출에 나섰다.

1분기 매출은 뷰티 부문에서 약 80% 가량 발생했다. 전년 동기 대비 92.5%



에이피알이 메디큐브 에이지알의 성공에 힘입어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내는 데 성공했다. 3분기 IPO 예비심사 제출을 목표로 하는 중 눈에 띄는 실적상승에 성공해 내년도 기업공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진은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캠페인 화보. 이달 방송인 유재석과 배우 정지소를 모델로 본격적인 캠페인 송출을 시작했다.

/에이피알

성장한 992억원을 기록했으며,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가 고르게 성장했다. 특히 ‘메디큐브 에이지알(AGE-R)’ 디바이스가 3개월 간 약 25만대 이상 판매됐다. 오는 하반기에는 D2C 시장을 넘어 병의원 등 B2B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며 바디케어 디바이스까지 영역을 확대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예정이

다.

해외 매출 실적도 전년 대비 37.1% 성장한 381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수출국인 일본과 미국에서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뷰티 디바이스가 판매됐다. 지난해 에이피알은 특히 일본에서 ‘에이지알’ 뷰티 디바이스를 1년 간 약 9만대 판매하면서 4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미국 시장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 당시 프로모션에 성공하며 이름을 알리는 데 성공했다.

에이피알은 기업가치 1조원을 목표로 내년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3분기 예비심사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신한투자증권을 IPO 대표 주관사로 선정했다.

지난 3월에는 프리 IPO 투자를 유치해 NH-수인베스트먼트 혁신성장 M&A 투자조합, SJ 파트너스,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약 7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 받고 80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성공적인 투자 유치에는 준수한 해외 매출 실적이 주효했다. 지난해 에이피알의 전체 해외 실적은 1437억원으로 전체 실적 대비 36.1%를 차지했다. 특히 뷰티 디바이스 부문 매출의 30%는 해외에서 발생했다.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는 “에이피알은 창립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왔으며, 뷰티 디바이스를 비롯한 당사 제품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높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해외 실적 개선과 신규 시장 진출 등으로 에

이피알이 가진 높은 기업 가치를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피알은 메디큐브의 ‘에이지알’ 등 뷰티 디바이스 부문뿐 아니라 패션 부문인 ‘널디(NERDY)’도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상태다. 널디는 지난달 현지 유향 패션 유통 업체인 마이손 리테일 매니지먼트 인터내셔널(MRMI)의 협업 계획에 따라 베트남 호찌민시 대형 쇼핑센터 비보시티에 베트남 2호점을 열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구매력이 크게 상승 중인 베트남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며 신규 출점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술 개발 역량도 투자사들로부터 인정받았다. 에이피알은 지난 1월, 뷰티 디바이스 전문 연구 시설인 ADC를 개소했다. 현재 30개 이상의 특허를 확보했으며 뷰티 디바이스 관련 기술 외에도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화장품 연구 및 임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프리 IPO 자금은 ADC를 포함해 뷰티 디바이스사업 역량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한미약품 바이오플랜트, 해외사절단 관심집중

글로벌 바이오업체 CEO 평택 방문
“스케일 감탄… 유연한 맞춤 서비스”

한미약품의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 평택 바이오플랜트를 방문한 해외 사절단이 최첨단 제조 설비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한 평택 플랜트의 제조 역량과 개발 노하우를 확인하고 본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한미약품은 아투카, 젠비라 바이오사이언스, 아이프로젠 등 10개 제약바이오 업체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로 구성된 캐나다 사절단이 지난 9일 한미약품 평택 바이오플랜트를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한미약품과 캐나다 사절단은 이날 국내외 바이오산업 현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오픈 콜라보레이션(개방형 협력) 방안 등을 논



지난 9일 한미약품 평택 바이오플랜트를 방문한 캐나다 사절단이 견학을 마친 후 한미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했다.

캐나다 사절단은 평택 플랜트의 첨단 대형 제조설비(최대 1만2500리터 규모 배양기)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둘러본 뒤, 한미약품이 오랜 기간 축적한 R&D 역량을 토대로 원료 및 완제의약품 제조와 품질시험, 허가자료 작성까지 가능한 ‘엔드 투 엔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 큰 관심을 보였다.

지아후 왕 젠비라 바이오사이언스 설립자는 “우리 회사는 이제 막 성장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회사인데, 한미 바이오플랜트의 전반적인 공정을 눈으로 보고 설명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됐다”며 “무엇보다 스케일 면에 감탄했고, 공정 전반의 자동화 시스템과 고객사 요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연함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lee@

종근당산업, ‘헤리티지너싱홈’ 인수

요양 케어 서비스 리딩기업 발돋움

종근당산업이 최고급 노인요양원을 인수하며 요양 케어 서비스 분야에서 업계 리딩 기업으로 발돋움한다.

종근당산업은 15일 더헤리티지너싱홈과 프리미엄 요양원 ‘헤리티지너싱홈’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헤리티지너싱홈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8765㎡(약 2650평)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를 갖춘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 요양 시설이다. 현재 프라이빗 베드 64개와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는 퍼블릭 베드 82개 등 146개의 베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90여명의 직원이 어르신들의 케어를 담당하고 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형병원과의 연계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입소자들이 가진 질환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및 재활이 가능하도록 전문적인 재활치료센터와 간호전문실을 함께 운영한다.

종근당산업은 이번 헤리티지너싱홈 인수로 프리미엄급 요양원 ‘벨포레스트’와 함께 수도권 내에서 총 230개 베드를 운영하게 됐다.

/이세경 기자

셀트리온, ‘CT-P53’ 3상 계획 FDA 제출

셀트리온은 지난 15일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오크레부스’ 바이오시밀러인 ‘CT-P53’의 임상 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미국 식품의약품(FDA)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CT-P53의 글로벌 임상 3상에서는 총 512명의 재발 완화형 다발성경화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CT-P53과 오크레부스 간의 유효성과 약동학, 안전

성 등의 비교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4월 해당 임상의 IND를 유럽 의약품청이 관리하는 임상시험정보시스템(CTIS)에도 제출했다.

‘CT-P53’의 오리지널 의약품 오크레부스는 로슈가 개발한 블록버스터 자면역질환 치료제로 재발형 다발성경화증(RMS), 원발성 진행형 다발성경화증(PPMS)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

/이세경 기자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브랜드 ‘톤워크’ 론칭

AI 기반 컬러 측정… 맞춤형 제품 제조

아모레퍼시픽이 맞춤형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톤워크(TONEWORK)’를 16일 공식 론칭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각자의 피부 색상에 최적화된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총 600가지 옵션으로 만나볼 수 있다.

톤워크에 적용된 맞춤형 기술은 세계적인 소비자 가전·기술 전시회인 ‘CES 2023’에서 로봇공학 부문 혁신상을 수

상한 바 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컬러 진단 알고리즘으로 정밀하게 얼굴 색상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로봇이 주문 즉시 제품을 제조해 준다.

전 세계인의 피부 톤을 연구해 정교하게 설계한 150가지 색상에 개인의 기호에 따라 2가지 제형(글로우, 세미 매트)과 2가지 제품 타입(파운데이션, 쿠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해 총 600가지의 옵션을 제공한다.

/이세경 기자

bhc치킨 “스윙킹폭립 구매 인증 하세요”

추첨 통해 시그니엘 숙박권 등 증정

대한민국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bhc 치킨이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스윙킹폭립 구매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방법은 간단하다.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bhc치킨의 스윙킹폭립을 즐기는 행복한 순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하면 된다.

bhc치킨의 스윙킹폭립 인스타그램 구매인증 이벤트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추첨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시그니엘서울 숙박권(1명), 3만5000원 상당의 스윙킹폭립과 치즈볼, 콜라세트(20명), bhc치킨 기프티카드 1만원권(30명)을 증정하며 당첨자는 DM으로 별도 안내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유통업계 신제품

신세계푸드 노브랜드 버거

100% 식물성 ‘베러 버거’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 버거가 전 세계 버거 프랜차이즈 중 최초로 100% 식물성 재료로 만든 ‘베러 버거’를 출시했다.

16일 출시된 노브랜드 버거의 ‘베러 버거’는 신세계푸드가 자체 푸드테크 역량으로 개발한 100% 식물성 버거 빵 ‘베러 번(Better Bun)’과 식물성 대안육 ‘베러미트’ 패티를 비롯해 최근 개발을 마친 식물성 치즈와 소스까지 버거에 쓰이는 4대 식재료를 모두 식물성으로 만든 버거다. 가격은 단품 5200원, 세트 7200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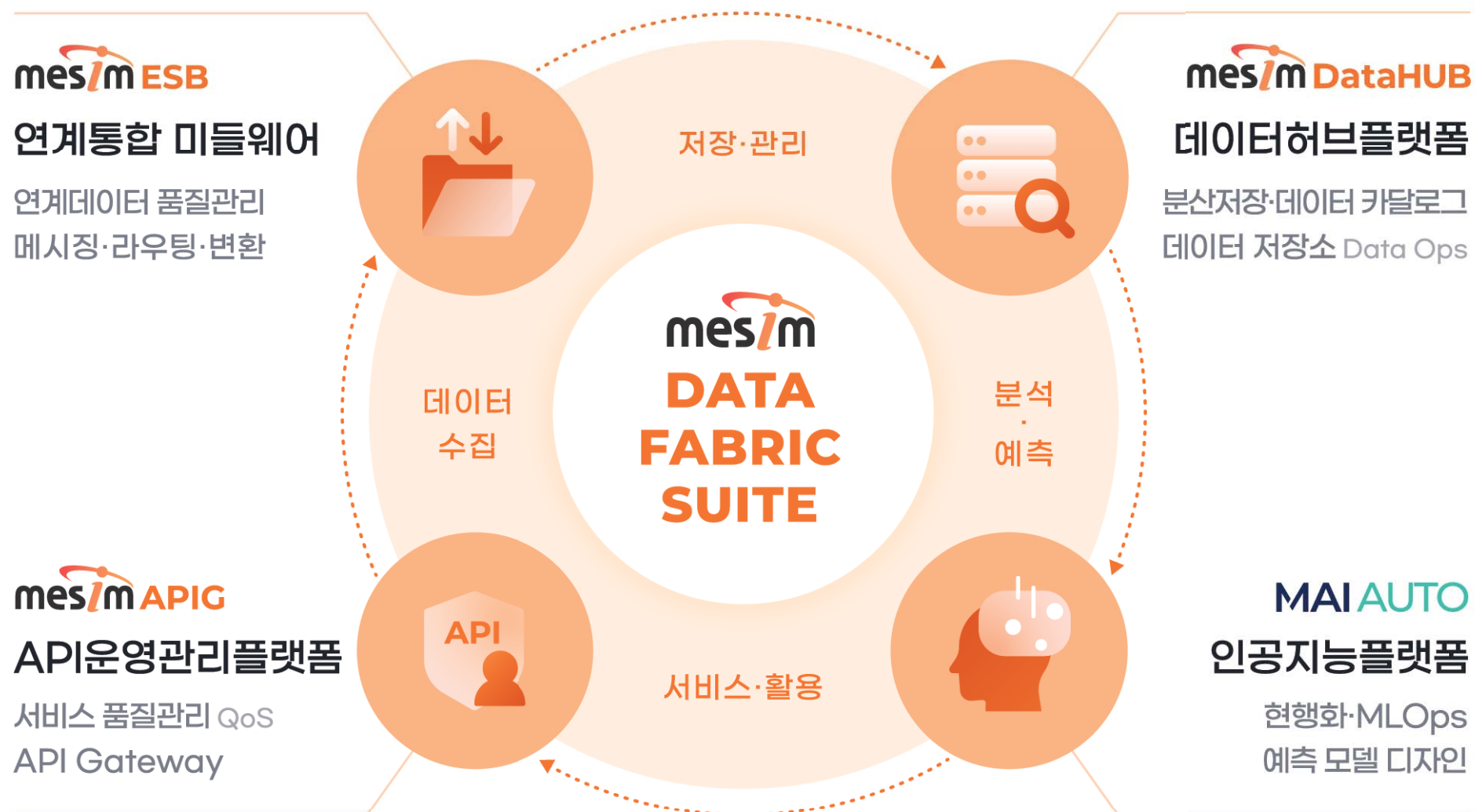
/신원선 기자

데이터 연계통합(ESB/IoT/망간) SW 3,000여 기관 공급
최고 품질·성능·실적·기술



DX 및 지속가능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Data end2end 기반 핵심기술

DATA FABRIC SUITE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수급대상 예측 서비스 #한국도로공사 디지털트윈기반 교통상황시스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계기관 시스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통 빅데이터 분석 표출 시스템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등



NH농협금융,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 나눔

NH농협금융지주 임직원 가족 봉사단이 농산물 나눔을 실천했다. NH농협금융지주는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필두로 가정의 달 맛이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 나눔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회장(왼쪽 네 번째)과 안용승 남서울농협 조합장(왼쪽 다섯 번째) 및 가족봉사단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금융지주



에쓰오일,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 1억 후원

에쓰오일은 16일 서울 마포구 상암문화비축기지에서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 전달식'을 갖고 '함께 일하는 재단'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안종범 에쓰오일 수석부사장 (오른쪽 세번째)이 함께일하는재단의 이세중 이사장(오른쪽 네번째)과 16일 서울 마포구 상암문화비축기지에서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 전달식을 열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쓰오일



인벤티지랩-유바오로직스, CDMO 사업화 맞손

마이크로스피어 장기지속형 주사제 및 지질나노입자(LNP) 연구개발·제조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이 유바이오로직스와 LNP 생산을 위한 위탁개발생산 공동사업화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인벤티지랩 김주희 대표와 유바이오로직스 백영옥 대표(왼쪽 세번째, 네번째)가 LNP CDMO 공동 사업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벤티지랩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 '금천하모니' 축제 참가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이 서울 금천구청 앞 및 안양천 일대에서 열린 '금천하모니축제'에 참가해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하는 하모니를 선사했다. 약 1만여 명의 방문객이 참여한 이번 축제에서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은 개막식 무대를 장식하며 지역 주민들과 화합의 시간을 나눴다. /코웨이



중기사랑나눔재단, '소품마켓 리턴즈' 오픈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중소기업주관을 맞아 16일부터 사흘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후문 문화마당에서 '소품마켓 리턴즈'를 연다. 중소기업계 뿐만 아니라 많은 소상공인들도 적극적으로 기부에 동참해 가전, 주방·생활용품, 의류, 잡화 등 약 3억원 상당의 후원물품 6만5000여점을 판매한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홍경한 의
시시일각

광주비엔날레(~7.9)는 2년에 한번 열리는 비엔날레와 미술관 기획전을 구분하지 못했다. 규모만 커졌을 뿐 연구의 깊이는 알았고, 당대를 바라보는 날 선 시선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비엔날레 본연의 혁신과 도전을 통한 진보적 담론 생성, 동시대예술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낙제점에 가깝다.

그럼에도 광주비엔날레는 세인의 숭한 입길에 올랐다. 전시 내용과는 무관했다. 스스로를 B급으로 전락시킨 '비엔나소시지' 홍보 영상을 비롯한 광주시장의 김건희 전 코바

해명도 사과도 없는 광주비엔날레

나컨텐츠(상업적 전시기획사) 대표 개막식 초청 발언, 단 1회로 끝난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등, 광주광역시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쏟아낸 여러 논란 탓이 컸다.

이 중 지난해 2월 제정된 '박서보 예술상'은 비엔날레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 상은 '단색화'를 대표하는 박서보 작가가 한국 미술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기탁한 100만달러(약 13억원)를 재원으로 만들어졌다. 2042년까지 10회에 걸쳐 시상할 예정이었다. 지난달 6일 첫 번째 수상자에 배출했다.

미술계 안팎에선 '박서보 예술상'을 반대해왔다. 군사 독재 정권 관련 미술 권력자의 이름을 딴 상과 광주비엔날레는 정체성 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비판 여론이

비등한 와중에도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으로 보란 듯이 박서보 작가의 SNS 항변성 글에 '하트'를 날렸다. 누가 봐도 강행을 의미한다고 판단할만한 행위였다. 한데 그로부터 얼마 뒤인 지난 11일, 재단은 갑자기 "올해부터 시상을 시작한 '박서보 예술상'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이미 지급한 상금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후원금은 박 화백 측에 반환할 계획"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전시 중 폐지라는 황당한 발표와 나머지 후원금만 돌려준다는 이상한 계산법에 의아했으나 일단의 예술인들은 '환영'을 표했다. 설득력 있는 의견에 대한 응답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다만 상을 제정하고 매듭짓는 과정에서 재단이 보인 어설픈 고 미숙하며 비이상적인 태도는 또

다른 잡음을 낳았다.

그도 그럴 것이 재단은 상을 만들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상의 명칭 및 행사와의 적합성, 역사적 의미 등에 대해 심사숙고한 것도 아니었다. 비엔날레의 공적 기능과 민주적 절차를 생각했다면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사달의 중심이다. 공동주최인 광주광역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게 무엇이든 최종 결정도 자신들이 한다. 엄밀히 말해 작가는 후순위다. 허나 비겁하게도 재단과 시는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논란의 모든 짐을 작가 혼자 지도록 하는 듯한 행태를 하고 있다. 미술계에 패아닌 반목과 불화를 제공했음에도 반성의 기미마저 없다. 뻔뻔하고도 실망스럽다.

/미술평론가

SK-하나금융, '통신·금융·미디어·유통' 결합 신사업 추진

SKT, 하나은행 등 6개사 협력
차세대 신용평가 모형 등 개발

SK ICT 패밀리 3사와 하나금융그룹 3사 등 총 6개사가 '통신과 금융' 이종(異種)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차세대 신용평가 모형 개발과 신규 상품 발굴에 나선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11번가 등 ICT 패밀리 3사와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 3사는 서울 중구 소재 하나은행 본사에서 '통신·금융·미디어·유통 데이터 결합 신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6개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업종간 고객 데이터 가명결합을 통해 ▲금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11번가 등 ICT 패밀리 3사와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 3사는 서울 중구 소재 하나은행 본사에서 '통신·금융·미디어·유통 데이터 결합 신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하나증권 최원영 상무, SK브로드밴드 이철행 담당, 하나은행 황보현우 본부장, SK텔레콤 장홍성 담당, 하나카드 이석 상무, 11번가 김중호 담당. /SKT

용소외계층을 위한 차세대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통신·금융이 결합된 데이터 기반의 신규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력은 각 사의 데이터를 개

인신용평가에 추가해활용함으로써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고객들의 금융 복지 향상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주부·은퇴

자 등 금융거래가 없는 고객들도 신용평가가 가능해져 맞춤형 중금리 대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그룹은 차세대 신용평가모형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개인 대출 심사과정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6개사는 차세대 신용평가 모형 개발을 위해 이동통신과 금융 및 온라인 정보 등을 가명정보 결합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가명정보 결합이란 서로 다른 정보처리자가 공통으로 보유중인 정보를 가명처리해 결합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뒤 결합해 더욱 가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채윤정 기자 echo@

롯데, 석촌호수 수질개선 이어간다… “그린 랜드마크 조성”

송파구청 석촌호수 수질개선 MOU

롯데그룹이 석촌호수를 지킨다. 롯데는 15일 송파구청과 '2023 석촌호수 수질 개선'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롯데 물산과 지주, 롯데월드 등 계열사와 함께 롯데 백화점과 칠성음료, 케미칼까지 함께 석촌호수 수질 개선에 힘을 합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송파구청과 재단법인 녹색미래, 주식회사 켄스도 업무협약에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롯데는 수질 개



롯데가 지난 15일 송파구청과 석촌호수 수질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왼쪽부터) 김만구 녹색미래 대표, 박상일 롯데월드 영업본부장, 김상우 롯데백화점 잠실점장, 류제돈 롯데물산 대표이사, 서강석 송파구청장, 이갑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감동훈 롯데칠성음료 홍보부부장, 최영광 롯데케미칼 커뮤니케이션부부장, 류영근 켄스 대표이사 /롯데

선 사업 기금 조성과 제반사항 등의 현장 업무를 지원하고 송파구청은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및 기

초자료 제공, 재단법인 녹색미래는 수질 모니터링과 기술자문 지원, (주) 켄스는 수질 개선 작업을 수행한다.

롯데는 2021년 8월 처음 송파구청과 석촌호수 수질 개선 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시 유일 자연호수를 시민에게 편안하고 깨끗한 쉼터로 선물한다는 의미. 2년간 노력으로 투명도가 0.6m에서 2m로 증가했고, 수질도 3급수에서 2급수가 됐다.

류제돈 롯데물산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수질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써 석촌호수와 롯데월드타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를 넘어, 세계인과 함께하는 그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부이사관 승진 △ 운영지원과장 이승희
◆한국체육대학교 △ 교무처장 조준호

△ 기획처장 박선영 △ 대학원장 김진호 △ 훈련학생처장 겸 최고경영자과정원장 김진해

부음

▲박동하씨 별세, 박용현(신한투자증권 신한PWM목동센터장)씨 부친상 = 15일,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8일 오전. 031-810-5444.

▲김병순 씨 별세, 최규석(의정부시 균형개발추진단장)씨 모친상 = 16일 오전 5시 30분, 의정부장례예식장 2호실, 발인 18일 오후 1시. 031-871-4444

KYO
WON 교원

wells

좋았어 달랐어
믿고써
웰스써

웰스써프라이즈



이찬원

교원 웰스 공식 모델 이찬원

마을버스 안에서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이른 아침, 모처럼 잣나무골 아래 마을회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탔다. 일행은 넷, 중학생쯤 돼 보이는 학생과 나, 외국인 노동자 둘이었다. 이들은 마을에 세들어 산다. 아는 이들이다.

요즘 외국인노동자가 확연히 눈에 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그들이 돌아온건가. 사실 그들의 손길이 있고서야 여기, 수도권 변방이 돌아간다. 도시 일자리는 부족하지만 여기는 사람이 더 부족하다. 언제부턴가 공장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그 자리에는 외국노동자들이 채워졌다. 그래서 인근 여러 마을의 중심인 안거리는 저녁이면 다시 사람들이 북적인다. 이곳을 북적이게 하는 이들은 외국노동자들이다.

암튼 좌석 열다섯개뿐인 작은 소형버스인데도 자리가 여럿 남았다. 다음 마을입구 정류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여럿이 오르고 뒷자리 두어개를 빼고는 다 채워졌다. 다시 안거리 정거장에서 노인 한무리가 차

에 오른다. 그러자 젊은 외국노동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어명은 뒷자리로 물러서고, 두어명은 선 채로 간다. 노인들은 주저하다가도 고맙다고 답례하고는 자리에 앉는다.

우리 풍습처럼 어르신에게 자리를 내주는 모습이 기특하달까, 내심 ‘다들 잘 배웠네’ 싶다. 함께 뒷자리에 앉은 우리 마을 한 외국청년은 27살, 네팔사람으로 5년 전부터 줄곧 여기서 공장생활을 한다. 다시 돌아온게 아니라 아예 떠나지 못했었다. 그런 그가 안스럽다. “고생 많네. 부모님 보고 싶지? 장가는 언제 가나?” 아는 사람이지만 오지랴스럽게 그동안 묻지 않았던 것들을 모두 쏟아낸다. 곧 고향의 여자친구를 불러 같이 살 계획이라란다.

한 청년은 베트남사람, 34살이다. 그는 아내와 여섯살된 딸 하나가 있다. 코로나19 직전 들어와 여지껏 있다. 그는 곤지암 인근 가구공장에 다니고 아내는 옆 마을 식품공장에 다닌다. 어린 딸은 안거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이다. 그는 한국에 정착해 아이의 공부도 여기서 마치고 싶어한다. 광주시내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곤지암읍내 베트남식당에서 친구들을 만나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어느새 작은 차에 사람이 넘쳤다. 절반 이상 외국인 노동자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즈베크스탄 등 중앙아시아, 동남아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네팔 청년에게 아는 사람도 있느냐고 물었다. 고개를 젓는다. 외국노동자들끼리 서로 아는 걸로 아는 게 좀 생경스럽다.

헌데 정작 물어 볼 말은 꽤 뒤늦었다. “어디가?” “경기대요?” “왜?” “한국어능력평가시험 보려요.” “몇급?” “5급요.” 시험 잘 보라고 격려하고는 또 물었다. “일하는데 시험까지 필요한가?”

네팔청년은 5년후 한국 거주기간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할 생각이라란다. 어학연수인 셈인 건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도 치뤄낼 거라고 했다. 그는 한국말이 어렵단다. 뭐라고 답해야할 지 모르겠다. 거기까지 얘기를 나누고 그와 작별했다. 아쉬웠다. 아무튼 마음속으로 꿈이 잘 이뤄져가기를, 이나라에서 나쁜 기억을 가져가지 않기를 바랐다.

/건설부동산부 선임기자 peace@metroseoul.co.kr

RE100은 나랏일이다



기자수첩
김재웅
(산업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 확대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전세계 정부가 강력한 친환경 규제를 시작하면서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했다. RE100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1차 목표도 10년이 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친환경 에너지 생산 비중은 전체에서 10% 안팎에 불과하다.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 문제도 있지만, 전력 공급이 한국전력 주도로 이뤄지는 데다가 정부도 뚜렷한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 탓에 돈이 있어도 친환경 에너지를 살 수도 없다.

직접 생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발전 설비를 마련하고 기술을 개발하면서 대응에 나섰지만, 필요한 수준으로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오죽하면 삼성전자까지도 지난해 친환경경영전략을 발표하면서 이런 애로사항을 고백했을 정도다.

앞친데 댈친 격으로 전기 요금은 올라버렸다.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할 비용도 더 오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해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그래도 계획대로 친환경화를 추진할 계획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에서는 작은 씁쓸함마저도 느껴졌다.

최근 독일에서 만난 현지 관계자는 어떻게 100% 친환경 에너지를 수급하느냐는 질문에 조금 비싼 친환경 요금제를 쓰면 된다고 답하며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

다. 국가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발전 비중이 60%에 달하는 상황에서 친환경 에너지는 선택에 불과한 문제라는 것.

그 밖에도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다. 애플을 비롯한 주요 빅테크 기업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완성차 공장까지도 상당수는 이미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100%로 끌어올렸다. 국내 기업들도 해외 거점을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국내에 생산 기지를 더 만들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친환경 에너지를 수급할 수가 없어서 공장이 있어도 수출을 할 수가 없을 수 있다. 전사적인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는데에도 걸림돌이 된다.

정부가 주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 노력은 피할 수 없는 도전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정도를 가야한다.

/juk@

오늘의 운세

5월 17일 (음 3월 2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다. 48년생 사업의 장구한 이익을 위해 신용을. 60년생 남의 단점을 바라보듯이 나의 단점도 찾자. 72년생 아시는 다음 날로. 84년생 귀인을 만나고 보니 옛날 지인.

37년생 내 처지가 초라하여 한탄하다. 49년생 늘 전화위복이 있는 것도 인생. 61년생 상대방의 나쁜 계락을 미리 알고 대처. 73년생 허상을 통해서라도 이성에게 과시하고 싶다. 85년생 마음이 한결같으면 어떤 일도 해낸다.

38년생 적당한 인재를 적당한 자리에 배치하다. 50년생 마음에 불만이 있다고 마구 행동하면 본인 발등만. 62년생 처음부터 가질게 없고 기대할 게 없다. 74년생 황금색이 행운을. 86년생 언제나 일인당백(一人當百)을 한다.

39년생 고학력임에도 생활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불성실의 결과. 51년생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 63년생 돈 문제로 이혼 위기. 75년생 결심이 사를 못 간다. 87년생 봄날 달밤은 천금의 값어치가 있다네.

40년생 행운은 균형과 조화를 중시한다. 52년생 입과 입속을 청결히만 해도 좋은 기를 받는다. 64년생 야간 음주는 종일 하루를 힘들게 한다. 76년생 낮에는 일하고 밤 사이에 공부한다. 88년생 뛰어난 작품이 드디어 태어난다.

41년생 살의 기운이니 먼 길에서 운전조심. 53년생 자두연기(煮豆燃萁)라 서글프다. 65년생 수면을 충분히 취해서 온기를 좋게 만들어보라. 77년생 연인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다. 89년생 은역을 입으면 보답을 해야 내 도리.

42년생 죽느냐 사느냐에서 절박하다. 54년생 내가 한 일은 내가 받는다. 66년생 나쁜 기운이 있을 때는 외출은 삼가. 78년생 바람은 손에 잡히지 않으나 손재로 이어질 수 있다. 90년생 꽃에는 향기가 있고 달빛은 아름답게 비추네.

43년생 현재 상황에 따라 움직이자. 55년생 주변의 신뢰를 잃게 되니 말조심. 67년생 얼굴빛이 어두우니 음식도 조심해서 먹도록. 79년생 개미구멍이 점점 커져 마침내 큰 독이 무너진다. 91년생 웃는 것은 천금의 가치가 있다는데.

44년생 초저녁 음주는 조심. 56년생 복권이 되려면 복권을 먼저 사도록. 68년생 정신을 한곳에 모아보자. 80년생 직원 중에 도둑이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을 흐리듯 한다. 92년생 우물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듯 답답하지만 헤쳐 나간다.

45년생 순간의 감정과 기분으로 약속하지 말자. 57년생 엷디엷은 살얼음 위를 걷는 심정으로 전전긍긍. 69년생 수성(水性)이라 예능적 기운이 탁월. 81년생 화장이 짙어 지는 일진. 93년생 한 가지 일을 보고 내일 할일이 짐작이 간다.

46년생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유지. 58년생 집안문제는 오전에 슬프고 이른 오후에 기쁨이 있다. 70년생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을 수 있을 정도. 82년생 내 능력은 새 발의 피로 적지만 발전적. 94년생 3가지 소식을 몹시 애타게 기다린다.

47년생 오늘 귀인은 전생에 이미 맺은 인연. 59년생 앞의 실수를 슬퍼하지 말고 재조명하는 거울로 삼자. 71년생 스승은 인품이나 글이 아름다우니 존경. 83년생 정서교육도 중요시. 95년생 한바탕의 꿈처럼 헛된 인생이 아니니 공부하자.



김상회의四季 곡우

올 해 곡우 날에는 적은 양이나마 촉촉이 비가 내렸다. 농본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 곡우 무렵 대부분 천수답이었던 우리나라의 농토들은 봄비가 충분히 와주어야 못자리 마련이 수월해진다. 그래서 곡우에 가물면 땅이 석자나 마른다는 말까지 있다. 젊은 사람들이야 잘 모르는 농사일이지만 곡우가 되면 벼농사에 중요한 법씨를 담가두어야 한다.

이때 초상집에 가거나 부정한 일을 보거나 당한 사람은 집 앞에 불을 놓아 그 위를 건너게 하여 부정한 기운을 거둬 낸 다음에 집 안에 들어와 집 안에 들어와서도 법씨를 보지 않게 한다는 풍습이 있는데 이는 부정한 사람이 법씨를 보거나 만지게 되면 싹이 잘 트지 않아 그 해 농사를 망친다는 믿음 때문이다. 심지어 강원도 어느 마을에서는 법씨를 담그면 향아리에 금줄을 쳐놓고 고사를 올리기도 하며 익산에서는 곡우 때 법씨를 담고 솔가지로 덮어놓아 부정을 쫓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역시 초상집이라든가 굿은 일이 생긴 집에 다녀오면 문 밖에 불을 놓고 들어오게 했는데 이는 불이 부정한 기운을 쫓는데 으뜸이라 보았기 때문이라. 이러한 절기의 풍습을 미신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풍속이나 풍습은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된 집단의식 또는 무의식의 발현이다. 절기는 정확한 자연과학이다. 북반구의 전통국가에서는 농사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주산업이었단지라 어느 때에 씨를 뿌리고 어느 때에 물을 대고 갈아야 최상의 수확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경험치가 모여서 풍속이 되고 풍습이 된 것이다. 때가 지난 뒤 씨를 뿌리면 아예 발아도 못하고 말라버리거나 때맞춰 비가 내려주거나 손보지 않으면 말 그대로 흉작이니 농사와 절기는 과학이라 하겠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9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9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투리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6 | 10,000원

		2	9		
	1			2	
		7			
	7	4		2	3
8			5		2
	5	8		6	4
			8		
	4			7	
		9	1		

2			6	3	5			1
	2		8		6			5
	1							9
	3		4		2			8
3			2	7	1			9

정답

8	7	9	1	2	6	8	3	5
2	8	3	5	9	7	1	6	4
6	9	1	7	8	3	5	2	4
1	2	6	7	9	5	8	4	3
1	2	9	3	5	8	6	7	4
8	9	5	2	6	7	1	9	3
9	8	6	5	1	2	7	4	3
5	1	2	8	7	9	1	6	3
7	1	8	6	5	2	9	3	4

8	2	1	8	7	9	6	9	1
9	1	8	5	9	6	2	1	7
6	9	7	1	2	8	9	5	3
9	8	1	2	6	7	9	5	3
7	6	2	1	9	5	9	1	8
1	9	5	9	1	8	7	2	6
1	7	6	9	5	9	1	8	2
8	5	9	7	2	1	6	9	3
2	1	9	6	8	1	5	7	9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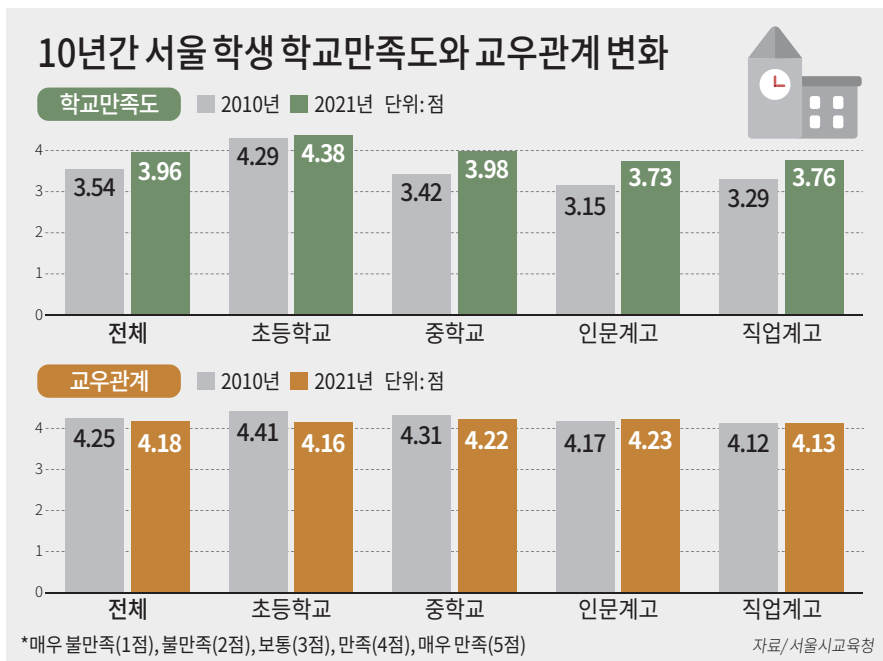
서울학생, 학교·교사 만족도 높아지고 교우관계 어려워졌다

2010년→2021년 달라진 학교생활
시교육청, 학교만족도 0.42점 상승
교사만족도 3.62점→4.17점으로
교우관계 4.25점→4.18점 하락

최근 10년간 학생들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교우 관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17일 '지난 10년, 서울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어떻게 달라졌나'를 주제로 이런 내용을 담은 '툭아보는 서울교육'을 온라인 발간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보원은 2010년부터 시작된 1기와 2021년부터 시작된 2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영역 공통 문항 전체를 활용해 조사를 실시하고 시기별 양상을 분석했다. 각 공통문항의 답변은 매우불만족(1점), 불만족(2점), 보통(3점), 만족(4점), 매우 만족(5점)으로 나누어 점수로 나타났다.

◆ 학교 시설·환경 만족도 높지만, 학교급 높아질수록 ↓



연도 간 결과를 비교하면, 2010년 3.54점이던 서울 학생 전반적인 학교만족도는 2021년 3.96점으로 0.42점 높아졌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학교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많이 올랐다.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010년

3.2점에서 2021년 3.88점으로 0.68점 올랐다. 학습능력 배양의 경우 0.66점, 특기·적성 계발은 0.64점 적절한 수준의 교수는 0.48점 증가했다.

단,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만족도는 2010년과 2021년 모두 학교급이 높

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학교급별 학교만족도를 보면, ▲초등학교(4.29→4.38) ▲중학교(3.42→3.98) ▲인문계고(3.15→3.73) ▲직업계고(3.29→3.76)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고등학교급 내에서는 직업계고 대비 인문계고가 더 낮았으며, 이는 2010년과 2021년 모두 동일했다.

교사에 대한 학생 만족도 역시 크게 오른 모습이다. 2010년 3.62점으로 '보통' 수준이던 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2021년 만족 수준인 4.17점으로 0.55점 올랐다. 특히 중학생들이 느낀 만족도가 가장 크게 올라 2010년 3.46점에서 2021년 4.2점으로 0.74점 뛰었다. 인문계고 학생들의 만족도 역시 2010년 3.3점에서 2021년 3.99점으로 0.69점 증가했다.

◆ 초등생 교우관계 어려움 가장 커…방과후학교 참여도 ↓ 만족도 ↑

교우관계 점수가 소폭 하락했다. 초·중고 전체적으로 4.25점이었던 교우관계 점수는 2021년 4.18점으로 낮아졌다. 교우관계는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휴식시간 등에 친구와 함께 지내는지 정도를 5점 만점으로 질문했다. 특히, 초등학생이 4.41점에서 4.16점으로 가장 크게 하락해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교우관계도 4.31점에서 4.22점으로 하락했다.

단, 인문계고는 2010년 4.17점에서 2021년 4.23점으로 0.06점, 직업계고는 2010년 4.12점에서 2021년 4.13점으로 0.01점 올랐다.

정지숙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실시한 '학생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초·중등학생 31.5%가 코로나19 이후 교우관계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43.2%가 친구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우관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에 1기에 서울 초·중·고 학생 1만6287명, 2기에는 1만4406명이 참여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로… 지원 강화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자격
13세 이하 2자녀→18세 이하 2자녀
서울대공원·식물원 등 전면 무료

서울시는 43만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시는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자격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가정에서 만 18세 이하인 2자녀 가정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학원비(10% 할인, 최대 2만원), 대중교통요금(최대 연 6만원 할인) 같이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필요한 할인 혜택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녀가 만 14~18세인 다자녀 가족은 7월부터 동주민센터 방문(실물카드) 또는 서울지갑 앱(앱카드)을 통해 '뉴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아울러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기존에 20~50% 감면받았던 서울시 공공시설을 전면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상상나라 ▲시립체육시설 ▲여성발전센터 ▲시립청소년시설이다.

50% 할인되는 공공시설은 ▲서울시공영주차장 131개소 ▲한강공원 11곳 내 주차장 ▲마루광장 주차장 ▲서남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서울시민대학 ▲시립체육시설이다.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와 공영주차장, 서울상상나라 할인은 바로 시행되며 나머지 혜택은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시는 다자녀 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 자녀 수 배점 항목에서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5점)을 3자녀 이상 가구부터 주고, 2자녀 이상인 경우도 종전(2점)보다 높은 배점(3점)을 부여한다.

우선 공급 대상도 미성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해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춘다.

오세훈 서울시장장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다둥이 부모님들이 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라며 "다자녀 가족이라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만큼은 무료 또는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만 13세 이하까지만 적용됐던 혜택도 만 18세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파주 임진각서 20일 '평화음악회' 개최

경기도, 총 3부로 국카스텐 등 출연

경기도는 오는 2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 오프닝 행사 가운데 하나로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평화음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은 '더 큰 평화'를 주제로 2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연중 개최되는 행사로 다양성과 개방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 '렛츠 디엠지(Let's DMZ)'에서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로 명칭을 개편했다.

디엠지를 주제로 열리는 '평화음악회'는 총 3부 공연으로 다양한 음악 장르의 뮤지션이 출연할 예정이다.

1부 공연은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국악과 서양음악 퓨전 장르를 연주하는 '경기팝스 앙상블',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경기도 홍보대사 '드림위드앙상블', 육군 제1군단 광개토부대 군악대가 출연한다.

2부는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이어지며, '명' 오페라단 소속 어린이합창단, 슈퍼스타K(시즌7) 출신의 '팍팍하늘', 경기소방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완이화'가 출연한다.

3부는 오후 5시부터 6시 20분까지 진행되며, 국내 최초 뮤지컬과 팝 음악을 접목한 '뮤지컬팝스오케스트라'를 국립합창단 예술감독 윤의중이 직접 지휘하며, 가수 하현우가 싱어로 있는 국내 대표 록밴드 '국카스텐'이 출연한다.

/의정부(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삼육대, 빅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신설

내년도 입시부터 신입생 모집

삼육대학교(총장 김일목)는 첨단학과인 빅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정원 30명)를 미래융합대학 내에 신설하고, 올해 2024학년도 입시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빅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클라우드 산업의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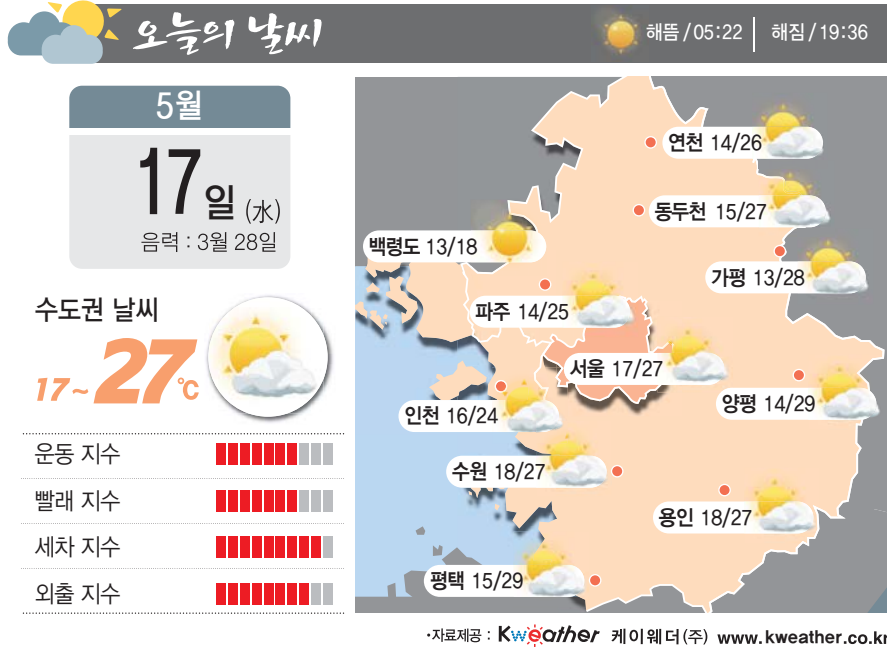
장을 이끌어가기 위한 탄탄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추고, 다양한 문제해결 능력과 전인적 소양을 겸비한 창의적인 글로벌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한다.

1·2학년 과정은 기존 컴퓨터공학과와 인공지능융합학부에서 다루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기초 이론과 프로그래밍 관련 교과목을 배운다. 3·4학년

과정은 여기에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에 특화된 '데이터공학트랙', '클라우드컴퓨팅트랙'을 운영한다.

데이터공학트랙은 ▲소셜빅데이터 분석 ▲데이터마ining ▲데이터시각화 ▲소셜빅데이터분석 ▲클라우드기반 빅데이터분석 등 과목을 배운다. 클라우드컴퓨팅트랙의 주요 교과목은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가상화 ▲클라우드인프라관리 ▲클라우드운영 ▲클라우드DevOps자동화 등이다.

/이현진 기자



버스타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 국방부, 광 미사일 방어망 전방위 확대…북 미사일 대비용 /사진 뉴시스
▲美특검 “2016년 FBI 러시아 스캔들 수사 잘못”

▲다가정용 전기요금 6월부터 인상…인상폭은 추후 결정
▲日 기사다, 24일 호주 시드니 개최 워드 정상회의 참석



▲中 고위 외교대표, 우크라이나·러시아 등 방문…중재 본격시도
▲中, 165년만에 러 블라디보스토크항 사용권 되찾아 /사진 뉴시스



매일유업
농어촌 테마공원
‘상하농원’ 가보니
니

metro[®]

Life

에이피알
1분기 영업이익
사상 최대
L2



“알코올 빼고 수제맥주 풍미 더하고… 맥주에 과학 담았죠”



이세경의
속깊은 인터뷰

황지혜 부족한녀석들 대표

지인들은 말했다. “그가 논알코올(No n-Alcohol)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기사”라고. 아는 사람이면 다 아는 애주가이자 맥주 ‘덕후’였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양조장을 차리고, 논알코올 수제맥주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누구보다 진심으로.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논알코올 전문 수제맥주 양조장 ‘부족한녀석들’을 찾았다. 환영 인사보다 먼저 차가운 맥주 한 캔이 손에 쥐어졌다. 기자의 손에 잡힌 ‘어프리데이’란 제품은 국내에선 처음 나온 논알코올 수제맥주다. 일단 한 모금 꿀꺽 삼켜봤다. 페일에일의 진한 향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알싸한 여운이 기분 좋게 남는다. “정말 논알코올이라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알고도 믿을 수 없는 맛이다.

부족한녀석들의 ‘어프리데이 페일에일’과 ‘어프리데이 스타우트’는 지난 4월 열린 대한민국 국제맥주대회(KIBA 2023)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나란히 휩쓴 제품이다. 무엇보다 논알코올임에도 전혀 놓치지 않은 맥주 고유의 맛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했다. ‘역시 덕후가 만들면 다르구나’ 할 때쯤 부족한녀석들의 황지혜 대표(사진)가 웃으며 말했다. “거기에 소주 타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 논알코올이라고 믿을 수 없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이고,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다. 우리는 일반 수제맥주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고 동일한 양조과정을 거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논알코올(알코올 도수 1% 미만)·무알코올(알코올 도수 0%) 맥주가 갖고 있는 텁텁함과 들쭉지근함이 없다. 소비자들로부터 실제 수제맥주랑 차이가 없는 씹쓸한 뒷맛, 풍부하고 깊은 바디감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뭐가 다른건가.

“효모가 당을 먹고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발효’다. 알코올 함량이 낮거나 없는 맥주의 약점은 이 발효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이 남아있는데 있다. 그래서 호박물이나 식혜처럼 들쭉하고 텁텁한 맛을 낸다. 일부 무알코올 맥주는 발효를 거치지만 완전한 이후 열을 가해서 알코올을 날리는 방식을 택한다. 이 과정에서 풍미가 사라지고 효모가 사멸한다. ‘어프리데이’는 알코올 도수 0.5%로 발효되는 기술을 갖고 있다. 차별점이다. 수제맥주와 동일한 재료, 동일한 양조과정을 거쳐 완성해 홉·발효 부산물 등 맥주 고유의 풍미가 그대로 남아있다.”

황 대표는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전자신문과 매일경제신문 기자를 거쳤고, 국민연금으로 자리를 옮겨 언론홍보담당을 지냈다. 하지만 줄곧 맥주 덕후였다. 휴가 때마다 세계 여러 나라로 맥주 여행을 떠났고, 맥주를 직접 제조해 먹기도 했다. 틈틈이 언론에 맥주 관련 칼럼을 기고했고, 맥주 콘텐츠 기업 비플랫(Beplat)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 ‘철밥통’ 직장을 박차고 나와 ‘덕업일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 왜 논알코올이었나.

“여러 나라로 맥주 여행을 다니다 보니 전 세계 수제맥주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다. 그런데 의외로 논알코올 맥주의 잠재력이 눈에 띄었다. ‘이 시장이 한국에도 곧 열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2021년 8월 처음 법인을 설립했고 2022년 5월부터 수제맥주 생산을 시작했다. 국내 논알코올 수제맥주를 만든 건 부족한녀석들이 처음이었다.”

- 국내 논알코올 맥주 시장은 어떤가.

“맥주 시장 규모는 점차 줄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성장하는 분야가 논알코올 맥주 시장이다. 아직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낼 순 없지만 업계에선 5년 안에 10배 이상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수입되는 논알코올, 무알코올 맥주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맥주 퀄리티가 점차 높아지고 종류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논알코올 맥주는 맛이 없다’는 편견을 깬 부족한녀석들은 지난 2022~2023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주류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KIBA 2023 논알코올 맥주 부문에서 ‘어프리데이 페일에일’과 ‘어프리데이 스타우트’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① 황지혜 부족한녀석들 대표가 경기도 남양주 양조장에서 논알코올 수제맥주 ‘어프리데이’의 양조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② 어프리데이 페일에일(왼쪽)과 어프리데이 스타우트. /부족한녀석들

맥주 여행 중 논알코올 잠재력 확인 국내 첫 논알코올 수제맥주 만들어

수제맥주와 동일한 재료, 양조과정 거쳐 논알코올 특유 텁텁·들쭉지근함 없애

한국 국제맥주대회서 금·은메달 수상 입소문에 완판 기록… 재구매율 높아 더 다양한 논알코올 맥주 개발하고파

타우트’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 이번 수상은 어떤 의미가 있나.

“대한민국 국제맥주대회에서 금메달이 나올 확률은 30% 밖에 되지 않는다. 기준에 차는 맥주가 없다면 금메달은 아예 주지 않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만큼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특히 올해 대회는 처음으로 세계 4대 맥주대회의 심사위원들이 참여해 권위가 더욱 높아졌다. 그런 상황에서 어프리데이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모두 차지한 것이다. 동메달은 부영이 맥주로 유명한 일본 히타치노네스트가 받았다.”

- 어프리데이는 어떻게 판매되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 판매하고 있다. 알코올이 도수가 1% 미만이면 술이 아닌 음료로 분류돼 온라인 주문과 택배가 가능하다. 홍대, 성수, 가로수길 등 서울 주요 상권을 비롯, 부산, 울산 등 대도시

펍, 식당, 이자카야 등 전국 20개 업장에도 어프리데이를 공급하고 있다. 까다로운 백화점의 입점 심사를 통과해 현대백화점 식품관 입점을 곧 시작한다.”

- 소비자들 반응은 어떤가.

“스마트 스토어에 매 회 배치할 때마다 완판되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의 재구매율도 40% 이상이다. 특별한 마케팅 없이 입소문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무엇보다 맛있고, 진짜 맥주와 차이를 못 느낀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황 대표에게 맥주는 주류가 아닌 ‘과학’이다. 일반 수제맥주 만큼 다양한 논알코올 수제맥주를 만들기 위해 최고의 재료와 배합 비율, 제조 과정을 지속 개발하고 있다.

- 앞으로의 목표가 뭐냐.

“어프리데이는 ‘알콜 프리 데일리 라이프(Alcohol Free Daily Life)’를 추구한다. 운동, 자기관리, 육아, 레저 등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든 맥주 고유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싶다. 호가든 스타일에 이어 IPA 스타일 맥주도 개발하고 있다.”

- 그나저나 사명은 왜 ‘부족한녀석들’인가.

“알코올이 많이 부족하니 그렇게 지었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해보니 여러 면에서 부족하더라. (웃음) 하지만 맛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자부한다. 일반 맥주보다 더 맛있는 다양한 논알코올 맥주를 앞으로도 계속 만들고 싶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버스티비 **야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3피홀런’ 오타니, 2루타 빠진 사이클링 히트 기록
▲‘7월 복귀 목표’ 류현진, 6월 타자 상대 실전 투구 /사진 뉴시스

▲伊연론 “김민재, 맨유행 임박…세부 조율만 남아”
▲김하성 1타점 썬기 적시타…MLB 샌디에이고 5연패 탈출



▲‘6경기서 6골’ FC서울 나상호, 4월 이달의 선수
▲‘시즌 2승’ 고진영, 여자골프 세계랭킹 2위로 상승 /사진 뉴시스